

정책토론회 자료집

##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일 시 : 2004년 9월 23일(목), 14:00 ~ 16:30

장 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층 대회의실

주 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프로그램

---

13:30~14:00    **등록**

---

14:00~14:10    **개회식**

---

개회사 : 백 용 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

14:10~14:50    **주제발표**

---

주 제 :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발 표 : 이 무 용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14:50~15:00    **휴식**

---

15:00~16:00    **지명토론**

---

사 회 : 전 성 민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소장

토론자 : 김 영 호    안양청소년수련관 원장

심 한 기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대표

안이영로    기분좋은트랜드하우스 QX 대표

김 혁 진    청소년지원네트워크 대표

유 연 식    서울시 문화과 문화정책팀장

이 희 란    서울시 체육청소년과 총괄팀

---

16:00~16:30    **방청객 토론**

---

#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5
제2장 청소년 문화연구의 패러다임 전환 .....	8
제1절 청소년을 둘러싼 담론 변화 .....	8
제2절 청소년 문화연구의 경향 .....	11
제3절 청소년의 문화환경과 문화정체성 .....	13
제4절 청소년 문화정책에 주는 함의 .....	14
제3장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환경 현황 .....	16
제1절 청소년 문화정책 현황 .....	16
제2절 서울시 청소년 문화시설 현황 .....	19
제3절 서울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현황 .....	24
제4장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실태 .....	38
제1절 서울시 청소년들의 문화향수 실태 .....	38
제2절 서울시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활동 실태 .....	42
제3절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사례 .....	54

제5장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방안 .....	65
제1절 서울 청소년의 문화활동 프로세스에 따른 활성화 방안 .....	65
제2절 서울시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 방안 .....	67
제3절 지역 내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 방안 .....	69
제4절 청소년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 .....	75
제5절 서울시 청소년 문화정책 기본계획 수립 .....	78

#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이 무 용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연구위원, [cult@sdi.re.kr](mailto:cult@sdi.re.kr))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담론은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시선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청소년 보호, 청소년 선도, 청소년 수련, 청소년 교화 등 우리가 익히 들어본 청소년 정책의 문구들은 청소년을 훈육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은 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지만 잘만 이끌면 건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에는 청소년이 세상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는 주체적인 존재이기보다는 기성세대의 가치체계를 전수 받아 정상적인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해갔으면 하는 바램이 담겨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소수자(minority)로서 존재해왔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사회 정책은 이처럼 소수자를 정도에서 벗어난(deviant) 사람들로 정의한 후 이들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생각해내는 데 몰두한다.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을 대상화시키는 권력의 정책적 의도에 따라 변화해왔다. 하지만 정작 그 정책들은 청소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했다. 지구화, 정보화로 요약되는 최근 10여 년간 사회 변화는 청소년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가 기성세대가 살아온 시대와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을 둘러싼 주요한 환경변화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정책의 강조점이 사회경제적 '구조'로부터 '과정(process)'으로, '지위'로부터 '기능(function)'으로, '역할'로부터 '이니셔티브(initiative)'로 옮겨졌다(Council of Europe, 1998).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인터넷 환경의 보편화, 모바일 문화의 파급력 확대, 쌍방향 통신의 영향력 증대 등에 따라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이 크게 달라졌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정보 기술을 가장 빨리 습득하는 연령층이자 이 기술을 자신의 표현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세대 집단보다 훨씬 능숙하다.

둘째, 오늘날의 청소년은 내적 다양성과 역동성에 있어 과거 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이 상업문화에 물들고 있다’ ‘청소년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청소년 사이에 왕따 현상이 심각하다’ 등의 말들은 청소년을 단일한 특징을 지닌 문제적 집단으로 단순화시키는 담론의 대표적 예다. 하지만 이러한 담론은 청소년이 외부(기성세대)와의 구별 짓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부(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또래집단) 사이에서의 구별짓기(distinction)를 통해 주체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다.

셋째, 현대 청소년들은 지식의 노후화 속도가 대단히 빠른 시대를 살고 있다. 약 12-16년간의 교육으로 살아가는 데 별 문제가 없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과 평생교육은 이제 불가피한 의무가 되었다.

청소년 정책은 구조적 도전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선진국가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개개인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청소년 정책은 최근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규범적 통제를 중심으로 한 소극적 대안제시에 머무르는 경향이 지배적이며, 특히 청소년 대상 문화정책은 대부분 연령에 따른 규제에 강조를 두고 있다. 이는 기존의 청소년 대상 문화정책이 변화하는 환경과 그에 따른 청소년들의 변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문화정책은 청소년 정책의 문화지향적 전환(cultural turn)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청소년을 창의적인 문화실천 주체이자 변화추진자로 인식하고, 사회구조와 문화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와 청소년집단의 이질화를 주목하면서, 청소년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청소년 문화정책은 문화의 ‘공공성’과 청소년의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양립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문

화를 현재 청소년이 좋아하고 즐기는 문화에 국한시키지 않고, 청소년이 문화적 주체로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체득하도록 도와주는 것, 자신과 다른 문화적 취향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 등이 청소년 문화정책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서울의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나은 문화적 환경에서 창의적인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과 정책대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청소년들의 ‘문화실천능력(empowerment)’, ‘문화마인드(respect)’, ‘문화참여(participation)’ 등을 핵심컨셉으로 하는 청소년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비전 제시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청소년이 처해있는 사회적 여건과 문화환경, 그에 따른 청소년들의 문화적 삶의 양태를 고찰함으로써 청소년 문화를 내부로부터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주체적 문화활동 및 실천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연구하여,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은 청소년 문화연구의 패러다임 전환, 청소년의 문화환경 현황, 청소년의 문화활동 실태,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언 등 크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문화연구의 패러다임 전환 파트에서는, 청소년의 개념을 둘러싼 담론변화와 청소년 문화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문화환경과 문화정체성을 정립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정책의 함의를 도출한다.

둘째, 청소년 문화환경 현황 파트에서는, 서울과 관련된 청소년 문화정책과 서울시의 청소년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본다.



셋째, 청소년의 문화활동 실태 파트에서는,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향수 실태와 서울시 청소년의 주체적인 문화활동 실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사례 등을 살펴본다.

넷째,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제언 파트에서는,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프로세스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방안과 서울지역 내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방안, 청소년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서울시 청소년 문화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심층인터뷰, 현장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연구에서는 청소년개발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연구자료와 관련 학계의 연구논문, 서울시,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기관의 정책자료, 청소년 전문단체의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학계, 청소년단체, 문화전문가, 청소년활동가,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심층인터뷰는 정부운영 청소년시설, 청소년 민간단체, 청소년 동아리, 인터넷 동호회, 또래모임 등에서 활동하는 총 31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활동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조사하였다.

현장조사는 청소년 문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유스센터(방배, 서초), 청소년 전문단체(품), 청소년 수련관(부천) 등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청소년 범위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 13~18세의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청소년<sup>1)</sup>은 본래 소년과 청년을 합친 말이어서,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9

---

1)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청소년’이란 근대의 사회적 구성물이다. 조선시대의 청소년 문화를 말하려고 할 때 당혹감을 느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청소년을 연령구분에 따른 사회적 집단이라고만 정의하면 당연히 조선시대에도 청소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로 규정짓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삶의 양태에 있어서, 초등학생과 중고교학생, 대학생에 각각 해당하는 연령층의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이 크게 다른데다, 청소년의 주체적인 문화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년인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교적 문화환경과 삶의 양태가 비슷한 중고교생 연령층(만 13세에서 18세)으로 대상을 국한시켰다.

#### [그림 1-1] 연구체계

---

러나 조선시대에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 어떤 다른 범주도 없었다. 현재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이란 범주는 “아직 완전히 성숙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기 행동을 책임질 수 있고 미래를 예비하는 존재”를 지칭한다. 근대 초기 이런 개념이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되었을 때 청소년에 대한 그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광수는 <소년>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청소년을 근대성의 자각의 주체로 설정하였으며, ‘청년이며, 분발하라’는 구호가 근대 잡지마다 넘쳐났다. ‘청춘의 끓는 피’는 민족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육체적으로 나약하고, 정신적으로 어리광이나 부리고 철부지 같은’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10대 말의 연령층을 자각시키기 위해 등장했다(신동원, 『조선사람의 생로병사』, 한겨레신문사).

<http://my.dreamwiz.com/khceng/history/hist012.htm>  
용.

에서 재인

**청소년 문화연구의 패러다임 전환**

- 청소년 담론 변화
- 청소년 문화연구 경향
- 청소년의 문화환경과 문화정체성
- 청소년 문화정책에 주는 함의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환경**

- 청소년 문화정책
- 청소년 문화시설
-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 문화향수실태
- 주체적 문화활동 실태
- 민관네트워크 사례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
- 지역내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
-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
- 청소년 문화정책 기본계획 수립

## 제2장 청소년 문화연구의 패러다임 전환

### 제1절 청소년을 둘러싼 담론 변화

‘청소년(youth)’ 혹은 ‘사춘기(adolescence)’는 근대의 사회문화적 창조물이다. 서유럽에서 청소년에 관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난 것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이며, ‘청소년’ 혹은 ‘사춘기’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19세기 중반에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가족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부터였다. 그리고 청소년 담론이 청소년 혹은 사춘기를 독자적인 삶의 시기로 보고, 청소년들의 삶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유럽사회에 풍요와 안정이 찾아오면서 아이들의 수는 늘어났고, 교육기회가 확대되었으며, 노동세계로의 전이과정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인 이해를 위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세대갈등이나 사회일탈의 ‘문제범주(problem category)’로서의 관심이었다(Cohen, 1997: 193).

반면 풍요의 수혜자로서, 소비사회의 주된 고객으로서 청소년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였다. 소비사회의 도래와 함께 레저와 소비, 여가의 영역에서 접근기회의 동등성이 보장되면서 세대론 속에 담겨있던 청소년에 대한 무계급성의 신화는 지속되었다. 이로써 1960년대 중반까지 청소년 문화는 상업적 선택의 문제, 그리고 취향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청소년은 ‘즐거움으로서의 청소년(youth as fun)’으로 재정의되었다(최이숙, 2002: 11).

이후 청소년은 끊임없이 대상화되고 소외되지만, 1960년대를 기점으로 ‘사회변화의 상징’적 주체가 된다. 1960년대에 사회적 불황이 다가옴에 따라, 교육을 받은 중산층 청소년들이 반(反)문화, 저항문화 운동을 이끌면서 사회변화의 직접적인 주체로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청소년을 각종 사회문제의 원천이자 희생자로 묘사했던 기존의 단일한 시각에서 벗어나, 정치·사회·문화의 다양한 배경 속에 청소년을 위치짓고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보다 최근에 청소년기는 생애과정(life course)에서 중요하고 전략적인 시기로

재평가되고 있다.

<표 2-1> 시기에 따른 한국 담론 내 ‘청소년’개념 변화

구분	1시기 <1970년~1979년>	2시기 <1980년~1987년>	3시기 <1987년~현재>
일반적 사회조건	권위주의적 통치체제 확립 경제발전, 사회안정에 주력 대중문화의 폭발과 통제	국가정통성 확보에 주력 교육기관, 언론기관 활용 지배이데올로기 옹호 노동통제 강화/유화정책	최초 민간정부 출현 형식적 민주주의 형성 사회주의권 몰락 본격적인 소비사회의 도래
청소년 사회조건	중등교육 팽창, 도시산업화 →청소년·청소년기에 대한 인식형성	대학생 증가,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의미변화 →대학생 특화	소비수준 상승 →청소년 소비세대로 등장 신세대·X세대·N세대
청소년 정책	“규제와 보호의 논리” 미성년자 보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육성업무로 전환” 청소년문제에 관한 관심 국가정책으로 인정 두발자유화, 교복자유화 야간 통행금지 전면해제	복지정책·보호정책 공존 보호정책·선도정책 공존 청소년헌장(90, 98) 청소년육성법(91) 청보법(97) 청소년육성5개년계획(93,98)
청소년 규정	미래주역, 국민으로 동원 보호대상, 미성숙존재 제약된 주체 청년문화 배제	보호·육성의 대상 본격적인 정부정책 대상 청소년과 대학생 분리	소비 주체 프로슈머(prosumer) 보호대상, 미성숙존재
청소년 문화	국가관·민족관 확립 애국애족의 문화생산 강조	제약된 소비주체인 10대 문화생산 주체인 대학생	탈선과 비행의 온상지 소비문화의 주 주체 생산적 문화실천의 장
담론적 대립	학생 대 근로청소년 학생 대 비행청소년	학생 대 비학생 학생 대 비행청소년	학생 대 소비자

\*참고: 최이숙, “1970년 이후 신문에 나타난 청소년 개념의 변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2002

이와 유사하게 한국사회에서도 ‘청소년’을 둘러싼 담론변화가 진행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담론의 변화는 자본주의의 발달양상, 국가 및 사회제도의 성숙과정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청소년이 국가의 정치적, 정책적 관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왔다는 의미이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담론의 변화는 크게 세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기는 청소년이 기성

세대와 대비되는 세대개념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1970년대이고, 두 번째 시기는 청소년이 대학생 집단과 구분되면서 청소년에 관한 담론이 ‘학생’에 관한 담론과 동일시되던 1980년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의 시기로 신세대, X세대, N세대 등의 개념이 새로이 등장하던 시기이다 (표 2-1 참조).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에 관한 담론 변화는 청소년에 관한 정책 변화와 더불어 진행되어왔다. 청소년에 관한 정책이 규제·보호·선도의 논리였던 1970년대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자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육성의 논리로 청소년 정책을 전환했던 1980년대 청소년은 사회정책의 주요 관심 대상이자 육성 대상이었다. 마지막으로 보호와 복지의 논리가 동시에 존재했던 1990년대에는 소비문화의 주체이자 보호의 대상으로서, 대중문화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프로슈머(prosumer)로서 청소년을 규정한다. 가장 최근에는 청소년에 관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주체화 논리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하고 이질적인 소비·표현·체험 주체로서, 다변화된 변화추진자로서 청소년을 바라보기도 한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재정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에 대한 담론은 ‘보호와 육성’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에 관한 담론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변화해왔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실은 청소년에 관한 대부분의 담론에서 청소년 본인은 항상 배제되어 왔다는 점이다. 청소년은 언제나 성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왔으며, 대상화되고 분류되어왔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몇 가지 편견이 발견되는데, 첫째, 청소년을 단일한 속성을 가진 사회집단(social aggregate)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을 시민사회의 구성원(young citizen)으로 인정하지 않고 온전한 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불완전한 시민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결정을 내리고 주어진 것을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주어진 것을 소화하는, 혹은 소화하지 못하는(안 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로 축소해버린다.

## 제2절 청소년 문화연구의 경향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문화연구는 1990년대 이후에서야 활성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신세대’ 담론이 언론과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비행이나 일탈과 관련된 ‘청소년 문제’로부터 ‘청소년 문화’라는 보다 적극적인 문제들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조성남 외, 2002: 27). 이 때부터 문화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이 청소년 연구와 결합하기 시작했으며 청소년의 ‘목소리’가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화하고 분류하는 한국사회의 열악한 청소년담론과 생산(자)/소비(자), 어른/아이, 능동/수동의 이분법적 편견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그룹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청소년의 문제를 ‘인권’ 혹은 ‘문화’의 관점으로 전환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청소년문화 연구의 경향을 대략 분류해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1990년대 이후 한국 청소년문화의 연구 경향

구분	세부주제	연구의 주 내용/청소년에 대한 관점
실태 조사 형	*여가활동 현황·욕구·만족도 *문화산업 소비행태 및 규모 *문화 관련 기관·시설·프로그램	*청소년의 여가참여 제약요인과 대안모색 *대중문화 소비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프로그램 조사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프로 그램 형	*수련, 육성, 복지 차원에서 문화 *지역사회의 공공시설·공공정책	*수련시설, 복지시설에서의 문화 활동 *청소년 문화정책, 프로그램 지원방안 *소외계층 청소년, 공적인 제도장치 마련
소비 문화 형	*미디어, 대중문화가 미치는 역기능 *문화상품 소비행태 *수용집단, 소비자의 특이성	*하위문화의 주체이자, 소비문화의 주체 *문화 산업론, 카타르시스·사회학습론 *대체로 수동적 소비자로서 청소년 간주
하위 문화 형	*또래문화, 하위문화 *청소년문화 담론에 문제제기	*청소년문제→청소년주체·하위문화로 *청소년의 또래문화와 하위문화가 지니는 긍정성 발견, 적극적 문화실천 행위 평가 *하위문화론, 문화자본·구별 짓기 *문화 소비자, 비판적 수용자로서 청소년

1990년대 한국 청소년문화 연구 경향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경향은 청소년의 여가활동이나, 청소년문화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와 같은 실태조사 보고서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연구경향은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문화정책과 관련한 문화연구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이후로 줄곧 강화되어온 청소년에 관한 육성정책에 힘입어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집 활성화 방안 연구, 수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문화 정책 개발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세 번째 연구경향은 매스미디어와 청소년문화, 대중문화와 청소년문화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들이다. 특히 매스미디어와 함께 급속도로 확산되어가는 소비문화가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연구경향은 청소년 또래문화 혹은 하위문화에 관한 연구들이다. 수동적인 소비자나 시청자로만 간주되던 청소년이 문화실천자로서, 문화생산자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의 또래문화가 주목받았고, 그 속에서 청소년들이 펼쳐내는 다양한 스타일의 ‘구별짓기’ 전략들이 연구되었다.

대체로 선행연구들은 한국사회 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기술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대중문화의 소비, 스타일, 여가 방식 등의 다양한 특성들, 지배규범과의 관계, 정체성 형성 등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기성세대와 구분된 일반적인 청소년 세대이거나 혹은 지나치게 특정한 하위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전자는 청소년 세대 자체의 분화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녔으며, 후자는 다양한 청소년의 하위문화를 다루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었다(조성남 외, 2002: 31). 따라서 청소년의 세대적 특수성과 청소년 내 다양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질적인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조사하고, 청소년 문화집단의 세분화에 따른 지원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영역과 공간에서 펼쳐지는 청소년 문화활동과 문화욕구 연구를 통해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소의 극복의 다양한 경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제3절 청소년의 문화환경과 문화정체성

문화에 관한 폭넓은 정의를 따른다면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의 가치, 신념, 사고에서부터 그들의 심미적 취향 및 행동양식까지 포함하는 청소년 집단이 공유하는 특징적인 생활양식의 총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예술창작 활동과 그 성과물, 여가활동, 또래 놀이문화 등 모든 유형의 문화 활동과 스타일, 생활양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의에 해당한다. 즉, 청소년문화는 “청소년들에 의하여 독특하게 구축되고 개념화된 의미체계이자 하나의 상징체계”를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은 “삶의 의미체계를 구성하고 생활방식을 형성하는 활동이며, 예술체험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형성과 같은 일상적인 교류도 포함된다”(김미윤, 2002: 43). 또한 청소년 문화에는 세대적 특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청소년 하위문화’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부모세대 혹은 지배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복종과 저항, 타협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청소년 하위문화는 자신들만의 특정한 활동, 가치, 물질적 활용, 공간영역을 가지게 된다.

이렇듯 청소년 문화는 지배문화와의 관계와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달리 말하자면,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의 주어진 삶의 조건에 의해 규정되기도 하고 삶의 조건을 반영하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문화환경의 변화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포스트모던’이다. 흔히들 ‘포스트모던’함으로 이야기되는 현 시대 청소년들의 문화, 인식, 경험은 소비주의(consumerism), 지구화(globalization), 마케팅, 매스미디어, 정보기술의 영향과 연관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특징에 따른 청소년의 문화정체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청소년은 소비문화의 가장 강력한 주체다. 그들은 시장에서 끊임없이 ‘소비자’로 인식된다. 1980년대 이래 다국적 기업들은 특정한 연령이나 관심에 따른 타깃 그룹을 설정하고, 그들의 다양한 정체성, 차이, 욕망, 구매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기업들은 청소년들에 주목하고, 그들을 소

비주위에 길들이고 훈육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까닭에 현재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시장에서 발견하곤 한다.

둘째, 현대 청소년은 ‘짜집기’ 혹은 ‘혼성화(hybridization)’ 된 문화정체성을 지닌다.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지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이 결합되게 되고, 여기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친 지역문화에 기반하여 글로벌 마켓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 선택은 시장에 의해 강요된 선택이며, 그 까닭에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주체성은 파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셋째,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통해 정체성을 구성한다. 역설적이게도 세계는 글로벌화를 통해 단일성과 다양성 양자를 동시에 추구하게 되었다. 이는 보다 빠르고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 과거에 정보와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기술로부터 차단되어 있던 공동체는 유사하면서 전통적인, 예측 가능하고 익숙한 사회화 과정을 지녔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자신들이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새롭고 적절한 정체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청소년은 미디어로부터 받아들인 이미지와 아이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생산하고 있다.

넷째, 하지만 청소년은 소비주의나 미디어의 단순한 볼모는 아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문화·인종적 배경 속에서, 미디어로부터 정체성을 구성하고 창조하는데 사용하길 원하는 이미지나 아이디어를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선택한다. 청소년들은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혼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상이한 문화적 스타일을 혼합한다. 비록 새로운 문화적·심미적 창조물을 발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소재를 새로운 생산물로 만드는 과정을 밟는다고 할 수 있다.

## 제4절 청소년 문화정책에 주는 함의

이상에서 살펴본 청소년에 대한 담론과 문화환경 변화, 그에 따른 청소년 문화정체성의 변화 등은 새로운 청소년 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서는 우선,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 문화는 그들 커뮤니티에서의 다양한 언어와 감수성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즉 청소년 세대 내에는 특수한 감수성과 견해를 갖는 다양한 차이와 이질성이 존재하며, 청소년 문화는 부모세대뿐 아니라 자녀세대들 내의 차이와 구별 짓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문화 내의 관념, 가치,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그 차이들 간의 소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은 소비문화의 주체이자 문화생산의 주체이며, 문화적 자율성을 가장 활발히 펼칠 수 있는 주체이자 문화적 모순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디지털 문화의 확산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폭넓은 문화 참여 기회와 활동의 장을 보장해주었다. 반면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문화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화 내부의 모순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자본주의적 가치에 반항하지만 자본주의의 소비문화에 깊이 빠져있고,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동류집단과 차별화를 시도하지만, 결국 집단의 문화를 따라하는 데 급급한 것 역시 사실이기 때문이다.

셋째, 따라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생산적인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소비문화의 강요된 선택에 유혹되고, 나열된 상품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경험과 정체성을 짜깁기 한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화적 환경은 그들의 주체적 역량이 모자라서라기보다는, 청소년들의 문화경험의 기회를 박탈하고, 오로지 ‘입시’만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사회의 문화환경과 문화마인드에 보다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환경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관리’와 ‘보호’, ‘통제’로 대표되는 낡은 문화정책을 버리고 자율, 참여, 분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문화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정책 참여,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능력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문화정책의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민-관-학-지역이 연계한 청소년 문화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 제3장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환경 현황

### 제1절 청소년 문화정책 현황

중앙정부가 청소년 정책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1년 노태우 정부가 기존의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변경하면서부터다. 1991년에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993년 ‘제1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1993~1997)이 시행되었으며, 1998년부터는 ‘제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1998~2002)이 시행되었다. 이 중에서도 청소년 문화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개발된 것은 ‘제2차 5개년 계획’이다. 특히 2차 계획은 문화 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 ‘청소년문화의 활성화’, ‘청소년 정보화’와 같은 테마들을 중점과제로 추가하면서 청소년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다. 반면, 이러한 청소년 진흥정책과는 정반대로 청소년을 통제·보호하려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1997년 청소년보호법을 계기로 청소년 일탈과 비행 현상들에 개입하려는 정부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문화활성화보다는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상 청소년 관련 정책업무는 그 특성상 대단히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시각이 요구될 뿐 아니라 관련 업무간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다(유문무, 2000: 409). 그러나 중앙정부의 청소년 정책의 큰 틀은 여전히 ‘육성’과 ‘보호’라는 이원화된 관점을 고수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최근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청소년 정책의 혁신이 시도되고 있다. 청소년의 참여없이 기성세대가 결정·집행하는 청소년 정책, 지역사회에서 실천되지 않는 청소년 정책, 민간의 협조와 자발적 참여가 결여된 청소년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업무 추진방식을 반성하고, 고객 중심, 지역사회 중심, 민관협력 중심으로 정책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표 3-1 참조).

<표 3-1> 문화관광부 청소년정책 혁신 방향

청소년정책 방향	세부과제
고객 중심 (Client-oriented)	-청소년 위원회 구성 · 운영활성화: 각급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성화: 청소년 시설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에 청소년 포함
지역사회 중심 (Community-based)	-지방공무원 및 청소년시설 · 단체 종사자 연수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선정 · 지원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제 도입 -지역사회 이니셔티브 적극 수용
민관협력 기반 (Partnership-based)	-분야별 정책자문위원회 적극 활용(정책, 교류, 문화, 복지 등) -민관 합동 TF 운영 -지역사회 민관 네트워크 구성, 지원(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 -수시 연수 기회 제공

\*출처: 문화관광부 “2004년도 주요 업무현황”, 2004. 7.

이처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정책적 흐름이 청소년 ‘참여’와 ‘네트워크’로 상당부분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청소년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사실상 몇몇 학교의 ‘잘 나가는’ 청소년 대표들의 엘리트주의적인 모임이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해 지역자원들을 네트워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건전 육성과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국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청소년과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청소년 건전육성과 건강한 시민생활 지도’라는 세부 정책목표를 지니고 있다. ‘보호’ 업무는 유해환경 감시단 구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육성’ 업무는 청소년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청소년육성정책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문화관광부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참여와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표 3-2 참조).

<표 3-2> 서울시 청소년정책의 기본 방향

정책방향	추진 목표	추진 시책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	청소년의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기반 구축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정보이용 안내체계 구축·운영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청소년 시설 확충 -청소년 시설 운영 및 기능 강화 -청소년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준향상 -새로운 청소년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평가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	-청소년 대안 교육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교화 선도사업 추진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관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추진체제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 확산	-서울청소년 종합상담실 기능 강화 -청소년 위원회 운영 활성화

\*출처: 서울시, “서울청소년육성 2004년도 시행계획”, 서울시 내부자료.

그러나 문화관광부나 서울시의 주목할 만한 정책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보완점은 여전히 남는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서울시 역시 이원화된 청소년 정책을 새로운 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보호정책과 육성정책의 상호보완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개념과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청소년 보호나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인권과 정치참여, 노동, 복지, 교육에 대한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 문화정책 기본 계획』이 보다 체계적, 정례적으로 수립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제2절 서울시 청소년 문화시설 현황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문화환경 조성 및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문화시설을 꾸준히 증가시켜왔다.

<표 3-3> 전국 시·도별 문화시설 현황

구분	시, 도 별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합계	2,263	762	538	474	404	424	175	2,121	580	595	894	859	1,056	1,207	1,014	230	13,596	
공연시설	365	87	58	61	48	44	23	198	58	41	39	47	46	67	71	21	1,274	
공공공연장	35	10	7	10	9	2	3	41	29	14	16	19	22	30	15	7	269	
민간공연장	112	32	14	10	12	16	10	23	7	7	2	5	9	4	19	3	285	
영화관	218	45	37	41	27	26	10	134	22	20	21	23	15	33	37	11	720	
전시시설	330	68	48	17	54	27	7	95	41	47	38	41	58	38	50	39	998	
박물관	73	9	6	3	6	13	1	36	17	14	20	14	11	19	22	12	276	
미술관	23	3	0	3	3	2	0	14	2	2	3	0	3	2	1	2	63	
전시실	25	12	4	6	5	6	1	39	22	26	14	22	39	17	25	11	274	
화랑	222	45	39	5	41	8	5	16	4	6	4	9	9	2	6	14	435	
문화복지시설	161	71	45	65	41	37	11	256	157	108	76	152	136	197	127	41	1,681	
문예회관	6	4	4	5	3	1	1	15	11	6	8	12	13	12	11	1	113	
시군구민회관	18	0	3	0	2	0	0	14	7	12	7	6	20	14	6	3	112	
문화의집	23	2	1	1	2	2	3	16	9	5	6	12	7	9	16	9	123	
복지회관	87	45	22	43	19	16	2	122	71	38	24	82	63	98	40	7	779	
청소년시설	28	20	12	16	14	18	6	88	60	45	29	47	34	65	54	24	560	
문화전수시설	25	9	7	6	9	6	3	36	23	16	24	28	32	33	30	2	289	
문화원	22	7	7	3	5	5	3	31	18	12	17	14	22	23	20	2	211	
국악원	1	0	0	2	3	1	0	1	1	3	2	7	4	6	2	0	33	
전수회관	2	2	0	1	1	0	0	4	4	1	5	7	6	4	8	0	45	
도서관	1,427	537	365	362	250	310	131	1,756	361	396	713	621	818	964	745	132	9,898	

\*출처: 문화관광부, 『청소년 백서』, 2003, p. 288.

전국의 문화시설 현황을 보면(표 3-3 참조), 서울시(2,263개)가 가장 많은 문

화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2,121개), 경북(1,207개), 전남(1,056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시설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부분에서 서울시가 가장 많은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문화 복지시설의 경우 서울시(161개)는 경기(256개), 경북(197개)에 이어 강원(157개)이나 전북(152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문화전수시설의 경우도 25개로 중간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전체 공연시설 365개 중에서 영화관(218개)이나 민간공연장(112개)이 공연시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시시설 330개 중에서도 개인화랑(222개)이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문화복지시설을 포함한 공공 문화시설의 부족을 의미한다. 때문에 현재 계획·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사업, 예컨대 첨단 이동식 공연장 설치, 시립미술관 분관, 전용공연시설 확충, 지역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계획 등은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공공문화시설의 부족과 함께 서울시 문화시설의 현황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문화시설의 지역적 편중 현상이다. 이는 공연·전시시설에서 특히 심각하게 드러난다. 공연·전시 시설의 대부분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상업적 혹은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특정 지역에 밀집 형성되어 있다(표 3-4 참조).

전체 공연시설 203개의 지역적 분포 현황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종로구(50개), 중구(29개), 강남구(24개), 송파구(17개), 마포구(11개)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강북구(1개), 금천구(1개), 성동구(1개), 중랑구(2개)가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전시시설 342개의 지역적 분포는 종로구(136개), 강남구(83개), 서초구(16개), 성북구(13개)로 한 개의 전시시설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강북구, 강서구, 금천구, 은평구, 중랑구에 비해 상당한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구민회관은 상대적으로 지역별 격차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역 종합복지관은 공연·전시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들이 오히려



많은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소외지역에 대한 공공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종합복지관 110개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강서구(11개), 강남구(9개), 노원구(9개), 동작구(7개), 구로·서초·송파(6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 서울시 지역별 문화시설 현황(총 705개)

구	지역 문화 복지 시설					
	공연 시설	전시 시설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문화원	종합복지관
강남구	24	83	—	1	1	9
강동구	4	1	—	1	1	2
강북구	1	—	—	1	1	4
강서구	2	—	—	1	1	11
관악구	2	2	1	1	1	5
광진구	7	3	—	추진	1	3
구로구	2	1	—	1	개원	6
금천구	1	—	—	—	1	3
노원구	7	1	1	1	1	9
도봉구	1	2	—	1	1	4
동대문구	2	5	—	1	1	2
동작구	5	2	—	1	1	7
마포구	11	8	—	1	1	2
서대문구	9	12	1	—	1	2
서초구	6	16	—	1	—	6
성동구	1	1	—	1	1	2
성북구	2	13	—	1	1	4
송파구	17	10	1	1	1	6
양천구	4	1	—	1	1	5
영등포구	5	6	—	1	1	5
용산구	7	9	—	1	1	2
은평구	2	—	1	—	1	3
종로구	50	136	—	1	1	2
중구	29	30	1	1	1	2
종량구	2	—	—	1	1	4

\*출처: 서울시 내부 자료, 2004. ( [www.seoul.go.kr](http://www.seoul.go.kr) )

이러한 서울시 문화시설 중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물을 살펴보면, ‘수련시설’로 이야기되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이 대표적이며 그 이외에, 직업체협학교나 예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학교 등 특수시설이 존재한다.

<표 3-5> 서울시 청소년 시설 및 인구 현황(총 131개)

구	지역 복지관	청소년 시설			학교		인구(2000년총인구)	
		문화의집	수련관	기타시설	중학교	고등학교	10~14	15~19
강남구	9(4)	—	2	—	23	21	31,960	47,408
강동구	2(2)	1	1	—	16	12	33,668	43,950
강북구	4(2)	—	1	—	12	5	18,688	25,901
강서구	11(1)	6	1	1	19	20	34,003	43,331
관악구	5(4)	3	1	1	15	16	24,952	37,147
광진구	3(3)	—	—	—	11	9	22,611	28,777
구로구	6(3)	—	1	—	12	11	22,869	30,197
금천구	3(2)	—	—	1	9	6	16,171	20,520
노원구	9(3)	2	1	—	25	23	43,208	51,925
도봉구	4(3)	—	—	—	12	7	25,256	29,398
동대문구	2(2)	2	1	—	16	9	19,675	27,623
동작구	7(4)	1	1	1	16	7	20,922	29,056
마포구	2(0)	—	—	—	12	8	18,445	24,712
서대문구	2(1)	3	—	—	12	6	18,890	25,262
서초구	6(5)	1	2	1	15	11	21,706	31,114
성동구	2(2)	1	—	—	9	5	17,734	22,923
성북구	4(2)	—	1	—	15	13	24,906	34,757
송파구	6(5)	1	2	1	24	16	42,817	55,631
양천구	5(4)	6	1	1	18	13	33,802	42,635
영등포구	5(1)	1	1	3	11	8	21,536	28,033
용산구	2(1)	—	—	1	9	10	11,371	15,756
은평구	3(2)	1	1	—	16	14	25,880	33,433
종로구	2(2)	2	—	—	9	14	9,369	12,606
중구	2(2)	—	2	2	8	12	6,547	8,742
종랑구	4(3)	3	1	—	14	8	28,985	34,946
총합계	110(63)	34	21	13	358	284	595,971	785,783

\*지역복지관에서 전체 복지관 수(청소년 문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수)

\*출처: 서울시 내부 자료, 2004. ([www.seoul.go.kr](http://www.seoul.go.kr))

서울시 청소년 문화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표 3-5 참조), 2004년 현재 청소년 회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유스 센터 등의 청소년 전용시설 68개와 지역복지시설 중 청소년 문화 관련 프로그램 및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63개 시설로 총 131개가 존재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문화시설 705개 중(표 3-4) 약 19%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그 중 청소년 전용시설의 비중은 전체 문화시설의 약 10%로, 청소년 문화시설의 비중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문화시설의 부족함은 서울의 청소년 인구와 비교해보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청소년 시설 1개당 청소년 10,000명 이상이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소년 시설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서구와 양천구가 8개로 가장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관악구·영등포구(5개), 서초구·송파구·중구·중랑구(4개), 노원구·동대문구·동작구·서대문구(3개), 강남구·강동구·은평구·종로구(2개), 강북구·구로구·금천구·성동구·성북구·용산구(1개)가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진구·도봉구·마포구(0개)가 최하위에 놓여있다.

하지만 시설현황을 지역 내 청소년 인구를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면, 시설 1개당 청소년 인구가 가장 적게 배치되는 지역은 중구(약 3,800명)이다. 반면 광진구, 도봉구, 마포구는 각각 청소년 인구 약 5만 명이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화시설이 단 한 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시설의 부재는 현재 서울시가 금천, 성동, 서대문, 도봉, 중랑, 마포, 광진, 용산구에 건립 계획 중인 청소년 문화시설이 완공되면 조금은 해결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여전히 청소년 문화시설은 지역 내 많은 청소년 인구를 수용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며, 지역간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 제3절 서울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현황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대상 문화프로그램을 주최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문화관광부 주최 프로그램, 서울시 주최 혹은 위탁 프로그램, 청소년 민간단체 주최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문화관광부 주최 프로그램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은 청소년육성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총 4개 분야, 즉 ‘청소년 육성기금 지원 사업’, ‘찾아가는 청소년수련마을’, ‘수련거리 개발 보급’,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 등을 통해 프로그램 공모를 하고 있다. 이중 청소년육성 기금 지원 사업은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 연간 약 100여개 사업에 대해 총 20억 가까이를 지원하고 있다. 문광부의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 어울 마당, 수련마을: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전국 시·군·구 약 250개 기관에서 매월 1회씩 개최하는 지역단위 프로그램인 어울 마당은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예컨대 전통 민속놀이, 자연 혹은 문화 유적 탐방, 레크레이션, 천체관측, 인터넷정보검색 교육, 영상 제작 등이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마을은 지역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수련활동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이나 도시벽지 등 소외지역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의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 국제교류 프로그램: 정부는 국가간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청소년뿐 아니라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정기적인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

비아, 모로코 등 14개국과 청소년 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는 대상국의 청소년기관 및 단체·시설 방문, 양국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와의 친선교류회, 민박, 역사유적지 답사, 산업시설 견학 등이 있다.

○ 문화기획 및 활동 프로그램: 문화관광부는 지역사회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단체·시설에 관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청소년 시설 및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하는 자발적인 청소년 동아리 결성을 유도하고 5명 이상의 청소년클럽에 대해 장소와 시설, 지도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지역 사회 내 청소년 동아리들의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외청소년들과의 문화교류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 그 밖에 2004년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 ‘청소년체력인증제 도입’, ‘청소년자원봉사 기반 확충 및 인증제 도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문화존’을 추진하고, 정보사회의 New Mind향상을 위한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프로젝트인 ‘Youth Voice 2004’를 기획하고 있으며, 한중, 한일 청소년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 2. 서울시 주최 프로그램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은 대개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2003년 36개 사업에 대해 약 12억원을 지원했으며, 2004년에는 수련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목표로 약 16억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육성의 차원에서 ‘청소년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준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청소년 단체 및 유관단체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에는 크게 문화감각, 과학정보, 국제감각, 봉사협력, 모험개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련 프로그램들이 있다. 주요 청소년 육성 문화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 주말 전용광장

<표 3-6> 서울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청소년 주말 전용광장)

구분	사업명	주관	사업기조	프로그램 내용	대상
청 소 년 전 용 광 장	뚝섬지구 청소년 전용광장	청소년 여가선용 지도협회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 *건전한 청소년육성	*풍물놀이, 댄스, 스포츠, 고공체험, 서바이벌 등 청소년 참가프로그램	청소년
	보라매공원 청소년 전용광장	한국 청소년 서울연맹	*청소년·가족·친구를 위한 야외수련활동 공간·시간 제공 *각종 체험활동 참여·학습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전한 청소년육성	*강력포옹, 연날리기 등 직접 참여 프로그램	청소년 및 일반인
	여의도공원 청소년 전용광장	한국 청소년 수련활동 협회	*여가 활동 기회 제공 *무료프로그램 제공	*청소년활동발표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우주공간체험, 스카이버지, 인라인, 청소년 락 페스티벌)	청소년 및 학부모
	이촌지구 청소년 전용광장	한국 청소년 서울연맹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수련활동 공간·기회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 육성에 기여	*주프로그램 1가지 (매회 별도의 체험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3가지 (인라인스케이트, 매직풍선, 모터사이클체험)	청소년 및 가족
	잠원지구 청소년 전용광장	한국해양 소년단 서울연맹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 *부모의 인식 변화, 청소년과 부모님의 프로그램 참가유도	*육상 활동 프로그램 *수상 활동 프로그램 *과학 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중계공원 청소년 전용광장	(사)한국 민족예술인 총연합 서울지회	*지역 중심의 특화된 문화축제 *우리문화 직접체험	*노원청소년한마당 (청소년문화살리기, 전시보컬 발표,댄스발표,알뜰장터) *우리문화체험교실	서울 초중등 학생, 교사
	월드컵공원 청소년 전용광장	흥사단	*건전한 여가문화의 장 제공	*동아리발표회, 탈춤, 풍물배우기	청소년

토·일·공휴일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프로그램 주관단

체의 특성에 따라 동아리 발표회, 우리문화체험교실, 육상활동, 수상활동, 과학활동, 풍물, 레크리에이션, 축제 등을 진행하게 된다. 주말전용광장은 청소년들에게 주말을 이용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기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참여율 저조, 사후 연계 프로그램의 부재, 홍보 부족, 전문 진행자와 자원 활동가의 마인드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 이동 청소년 수련광장

<표 3-7> 서울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이동 청소년 수련광장)

구분	사업명	주관	사업기조	프로그램 내용	대상
이동 청소년 수련 광장	이동 청소년 수련광장	한국 청소년 서울연맹	*심신수련, 정서함양 *문화시민 육성의 기틀제공, 재정적 부담 없는 활동 공간	*놀이마당, 체육활동, 심성개발 *신청 학교나 시설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당 시설에서 실행	초중고 학생
	이동 청소년 수련광장	한국 청소년 지도자협회	*서울시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수련활동 및 다양한 놀이문화 체험제공	*상설프로그램 (아이스브레이킹, 공연, 민속마당, 미니올림픽, 과학마당, 축제 등) *선택프로그램 (탈춤, 전통무술, 댄스, 영상여행)	소외 계층 청소년
	이동 청소년 수련광장	흥사단	*문화소외 청소년들에게 장비, 프로그램, 지도자활동 지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보급, 자신감과 표현력 향상	*전통문화 한마당, 학교 최고를 찾아라, 초청공연, 학생공연, 작은 콘서트, 헬리콥터제작교실(특수아동), 청소년 열린 페스티벌	청소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수련활동 및 다양한 놀이문화체험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공동체意識, 자신감,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문화소외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문화 활동의 기회

를 제공한다는 점, 프로그램을 신청한 각 대상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장비나 행사 프로그램의 부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전용광장과 마찬가지로 사후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고민 없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

#### ○ 국제교류 프로그램

<표 3-8> 서울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국제교류)

구분	사업명	주관	사업기조	프로그램 내용	대상
국제 교류	국제 청소년 교류활동	한국 청소년교류 진흥협회	*외국청소년 국제친선, 교류 *국제 감각, 세계시민 양성	*참가자 사전교육 실시 *참가국품물전시회, 한복체험, 문화교류의 밤, 세계음식축제, 사물놀이 공연, 탈춤 배우기, 국회의사당 견학 등	서울시 청소년
	한민족 역사문화 탐사	(사)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몽골루트를 탐사 *청소년들에게 민족정체성, 모험정신, 개척정신 심어줌	*한민족 몽골루트탐사, 승마, 유람선관람, 전통공연 관람, 낙타타기, 풍등날리기 등	서울시 소외 청소년 (중1~고1)
	청소년 유럽 배낭여행	(재)서울 카톨릭 청소년회	*유럽 국가들 탐방 *유럽배낭여행 체험 제공 *환경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주로 견학 활동 프로그램 *조별 퀴즈전, 알프스등반	서울시 청소년, 소외 청소년

다른 나라들을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외국인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교류의 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외방문의 경험이 흔치 않은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얻어내고 있다. 하지만 특정한 테마가 부족한 단순한 여행에 그쳤다는 점, 사후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청소년 국제교류’라는 의의가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 프로그램 기획이나 진행에 있어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체험활동 프로그램

<표 3-9> 서울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체험활동)

구분	사업명	주관	사업기초	프로그램 내용	대상
체 험 활 동	청소년 자연체 험 활동	한국 해양소년단 서울연맹	*자연체험 통해 소외감 해소 *호연지기와 협동심을 함양 *수상체험 활동과 문화견학	*3박 4일간 캠프진행 (바닷가 식물제집, 파도타기, 해군부대 탐방, 고무보트 체험, 바나나보트타기, 조개줍기 등)	소년소녀 가장, 빈곤 청소년
	음악감 상 체험교 실	(사) 꾸러기 예술단	*클래식음악 감상 기초지식 *공연감상 통해 클래식 이해 *건전한 문화적 정서 함양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 악기들, 무대 참관, 음악감상, 토론회, 연주회 관람	초중고 학생
	청소년 민속공 예	이 시대의 좋은 소리	*자연에서의 문화체험 통해 자기개발, 자신감, 성취감 *전통공예 이해, 여가선용	*도예 공예 체험프로그램 *공동체 프로그램 *야외 음악회	서울 청소년, 중고생
	자원봉 사 뒤집어 보기2	청소년 문화공동체 ‘꿈’	*청소년행사 직접 기획, 참여 *수동적인 자원봉사 탈피	*청소년연극제, <추락>걸개작업 *양파밭 농활, 분교 자원봉사 *장애청소년 연극제 자원봉사	‘꿈’ 청소년
	청소년 을 위한 예절교 실	예지원	*예절교육을 통해 품성 고양 *전통 예절생활과 글로벌 시대의 에티켓 교육을 겸해 국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대응	*현대생활예절 (생활예절, 글로벌에티켓) *전통생활예절 (예의정신, 의생활예절, 차예절)	서울시 초중고 학생
	농·어 촌 체험활 동	(사) 한국환경 교육협회	*환경과 자연, 농어촌 경험 *팀별활동 통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자연과 조화된 교육 지향	*농촌 특산물 CF제작·발표회 *해수욕장 3종 올림픽, 농기구사용법, 어구·농촌조사, 아리랑 십리길 걷기, 갯벌의 쓰레기 수거 등	서울 청소년, 농·어촌 청소년
	장애 청소년 직업체 험학교	(재) 청소년과 사랑사랑	*예체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직·간접적인 사회경험 *지역의 교육·문화·직업적 자원 연계하여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사회통합	*사회통합 위한 직업체험 *집단놀이체험 *지역사회 축제놀이 *성과발표회 등	강북성북 장애, 비장애 청소년
	체험 환경교 육 프로그 램	(사) 한국환경 교육협회	*도시권의 자연·환경과 여러 환경교육시설들을 통한 교육과 체험을 중시	*일일 체험 및 방문 교육 (양재천, 양재시민의숲, 청계산) *캠프	환경 지킴이 청소년
	신나는 비행체 험학교	청소년 참사랑 운동본부	*항공 우주 산업의 인재양성 *도전익식, 호연지기 양성	*청소년자원봉사단과 함께 진행 *캠프(모형비행기 제작, 비행체험, 갯벌체험 )	소년소녀 가장 해체가정 청소년

체험활동은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체험’을 전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문화적 호기심과 욕구를 만족시킨다. 또한 체험활동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상이한 경험과 환경을 지닌 청소년들간의 교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 농·어촌 청소년과 도시 청소년들을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상이한 경험을 지닌 청소년들에게 상호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체험활동의 방식이 다소 일방향적이며, 청소년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 탐험활동 프로그램

<표 3-10> 서울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탐험활동)

구분	사업명	주관	사업기초	프로그램 내용	대상
탐 험 활 동	철인3종 국토횡단 체험	한국 스카우 트 북부연 맹	*국토횡단을 통해 극기심, 모험심, 협동심, 단결심 *환경활동으로 국토에 함양	*도보, 자전거하이킹, 레프팅, 유적지 탐방, 낚시, 수중체험, 설악산 등반	서울시 중고생
	2003 서울역사 현장순례	(사) 흥사단	*서울의 성곽 순례 *현장방문 통해 역사유적 파악 *애국심 함양	*각 코스별 유적 답사 *소감 발표, 장기자랑, 공연	소외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이 직접만드는 테마체험 여행	(사) 청소년 교육전 략 21	*청소년 직접 테마여행 기획 *여행을 통해 자립심,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체험여행을 통해 형성된 정보를 정부, 관련단체에 제공	*지방의 유적지, 명승지 탐방 *체험 활동 (보성차밭, 보성도자기, 낙안읍성 탐방 및 체험)	16개 단체
	한강사랑 자전거 릴레이캠프	(사) 색동회	*자연사랑 캠페인 활동 추진 *한강의 역사, 유적, 유물 답사 *한강을 사랑하는 마음 고양	*한강 주변의 유적지 답사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생태체험교실 등	서울시 초중생

탐험활동은 역사의식, 국토애, 자연사랑 등과 같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 활동들이다. 탐험활동 프로그램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부분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직접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테마체험 여행은 지속적인 사전모임과 사전 강좌를 통해, 청소년들이 여행의 목적, 장소, 일정, 비용 등을 직접 기획하였다. 또한 다른 분야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탐험활동 프로그램에서는 사후 연계 프로그램을 고민한 흔적들이 보인다.

### ○ 문화기획 및 활동 프로그램

<표 3-11> 서울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문화기획 및 활동)

구분	사업명	주관	사업기초	프로그램 내용	대상
문화기획 및 활동	난나 엔터테인먼트	강북 청소년 수련관	*공연전문 교육과 발표 기회 *강북지역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도래간의 문화공동체 경험	*댄스, 풍물, 밴드, 연극 *2개월간의 교육과정 거쳐 발표회 진행.	강북 청소년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축제	구로 청소년 수련관	*학교에서 지역으로 활동확대 *지역주민과 공감하는 활동 *청소년 문화를 스스로 선도	*레크레이션 *학교축제, 동아리공연 (보컬, 댄스, 풍물 등)	구로구 중고생
	온몸으로 노래하는 뮤직퍼포먼스	수서 청소년 수련관	*음악 좋아하는 청소년 활동 *공연기획을 위한 공동작업 통해 공동체의식, 자신감 향상	*강의와 공연 *퍼포먼스연구, 신체훈련 공연관람, 나 프로젝트	수서 청소년
	청소년 심리사회극	청소년교육 전략21	*심리극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 스스로 해결	*워크숍과 발표 *역할놀이와 감정표현 등	청소년
	서울시 청소년 연극축제	청소년 문화공동체 '품'	*연극을 통해 자기표현 지원 *청소년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유도	*청소년·교사 워크숍 *기획단 캠프, 연극축제	서울시 청소년 연극 동아리
	청소년 전통예술 마당	작은 소리학교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향상 *학교 전통예술 관련 동아리 네트워크 발굴 지원	*본 행사 전 순회지도 *참여마당, 길놀이, 지신뽕기, 한마당 등	학교 전통예술 동아리

문화기획 및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 문화기획 및 활동 프로그램은 사전에 청소년 문화기획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문화교육을 제공하며, 그 성과물로서 공연 및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또래 동아리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 프로그램 참여 경험자들과 새로운 참여자들 간의 교류를 모색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문화기반시설 및 지역 주민과의 연계를 고민한다.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획과정에서 소수의 청소년들만이 참여한 점, 청소년기획단의 참여수준이 적극적이지 못한 점, 청소년동아리-청소년단체-학교-지역기반 문화시설 간 네트워크의 구성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계를 이루어내지 못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청소년 육성 문화프로그램 외에, 서울시는 약 35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청소년 보호활동 프로그램으로서 푸른교실만들기, 인성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 3. 청소년 민간단체 주최 프로그램

현재 서울시 소재 청소년단체는 총 97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육성 및 수련활동, 청소년문화 및 예술 활동, 국제교류, 청소년에 관한 연구사업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청소년문화 관련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국제교류 프로그램

<표 3-12> 서울시 민간단체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국제교류)

구분	사업명	주최	사업기초	프로그램 내용	대상
국제교류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	한국 스카우트 연맹	*해외국가 청소년들과의 교류 *다양한 문화이해, 국제적 마인드 함양	*정보과학 프로그램, 전시, 국제의 밤, 레포츠활동, 서바이벌, 암벽등반 *통일염원 미니 마라톤대회, 모터싸이클, 바이클링	13~18
	내일을 위한 위대한도전	한국 스카우트 연맹	*캐나다, 뉴질랜드 연맹과 파트너십 구축	*캐나다, 뉴질랜드 스카우트 대원과 학교수업체험 *각 회원국 지역대와 야영, 주말프로그램 운영	걸스카우트 6학년
	한일국제 Work camp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자연생태계의 중요성과 보존필요성에 대한 이해확대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함께 만드는 Workcamp *국성지역주민들과 교류	*지역주민과의 교류프로그램 *국성지역 아이들과의 캠프 *한일 문화 비교	만16세 이상
	실크로드 탐사	한국 탐험연맹	*5대양 6대주 세계일주 탐험 *실크로드 통한 역사재조명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로인 현장 체험탐사 *고대 유적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를 알 수 있는 계기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 탐사, 타클라마칸 사막 종주, 실크로드 · 만리장성 · 황화강 · 명사산 · 월야천 탐사, 생태탐사, 중국 소수민족 문화체험, 파미르 고원 등 고대유적 탐사	초4~고
	유럽8개국 문화체험	한국 탐험연맹	*세계문화의 중심인 유럽지역을 탐사하여 넓은 세계관 양성 *다양한 세계문화를 직접 체험, 학습	*체험과 탐사를 중심으로 한 중부 유럽 배낭여행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초4~고
	해외 문화체험 활동	한국청소년 수련활동 협회	*문화생활 체험을 통한 국가간 상호교류 및 우의증진	*일본, 중국 문화유적 탐사 *생활현장 등 견학	초중고 교사 학부모
	청소년 해외영어 연수	서울 YMCA	*현지 원어민과 교류 *영어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다양한 문화체험	*벤쿠버 3주간 홈스테이 *문화 활동과 캠프활동 경험 *생활영어 학습	10~16 세

청소년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주로 청소년 국제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 한국 로타리 청소년,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서울 YMCA 등은 단체의 국제적인 특성을 살려 회원국 청소년들 간 국제적인 상호교류를 기획하고 있다.

○ 체험활동 프로그램

<표 3-13> 서울시 민간단체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체험활동)

구분	사업명	주최	사업기조	프로그램 내용	대상
체 험 활 동	청소년 사찰생태 문화기행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도시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전통사찰의 수련문화 체험 *생태환경 살펴보고, 생태적 각성과 환경의 중요성 도모 *공동체적인 삶의 지혜 체득	*참선체험, 문화재 탐방, 생태환경체험활동, 박물관견학, 인근 문화재탐방, 들꽃기행	청소년, 지도자
	함께하는 사회만들기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사회속의 서로 다른 노시·농촌간 문화체험, 교류 *농촌현실 이해하고 체험학습의 기회 마련	*문화체험활동 (보드게임, 포크댄스, 민속놀이, 레크레이션) *갯벌탐험 및 보호활동 *야간활동(오리엔티어링) *캠프파이어, 작은 운동회	회원, 전남 북평면 청소년
	청소년 환경체험 캠프	그린웨이리 운동연합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필요성 고취, 자연보호운동 *다양한 환경교육 체험	*환경교육, 숲 체험 교실, 레크레이션 등	청소년
	평화통일 체험활동 SINCE1995	한국스카우 트연맹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 고양 *병영체험을 통해 애국심 고양	*휴전선 도보, 통일 염원제 *병영체험	중고생
	청소년 호국 수련활동	한국스카우 트연맹	*병영체험 통해 안보의 중요성 자각하고 애국심 함양	*병영체험, 안보교육, 장비견학	중고생
	삶의 뿌리를 찾아서	품	*지리산 자연환경, 역사체험 *집단활동과 전통문화 체험으로 공동체 정신 배움	*전래놀이 장터, 레프팅, 전통음식 축제, 생태체험	청소년, 지도자
	품캠프	품	*자연체험, 역사·문화 활동 *공동체 정신 배움	*연2회 진행 *도시지역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캠프 진행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크게 농·어촌 체험을 비롯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평화·통일과 관련한 병영체험 프로그램, 전통문화 혹은 공동체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청소년문화공동체 ‘품’이 진행하고 있는 ‘삶의 뿌리를 찾아서’는 단기사업이 아닌 7개년 계획의 장기사업으로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가는 다양한 소집단 활동이 프로그램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목할 만하다.

#### ○ 탐험활동 프로그램

탐험활동은 대개 우리나라 국토를 탐험함으로써 국토애와 애국심을 함양하고, 도전의식과 독립심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탐험활동도 체험활동과 유사하게 도시를 벗어나 도시청소년들이 평소에 경험하기 힘들었던 낯선 곳, 특히 자연지대를 탐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대부분 극기 훈련 체험의 형태나 캠프의 형태로 진행된다.

#### ○ 문화기획 및 활동

청소년 민간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문화기획 및 활동 분야다. 이 분야의 프로그램은 크게 동아리 축제, 영상제, 동아리 및 문화예술 경영대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아리 축제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청소년 기획단을 모집하여 축제를 기획하고 참가 동아리들의 문화 활동 성과물을 발표하는 형식을 띤다. 청소년 축제가 기획의 과정과 참여에 초점을 맞춘다면, 청소년 동아리 및 문화예술 경영대회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우수 동아리 및 재능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표 3-14> 서울시 민간단체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탐험활동)

구분	사업명	주최	사업기초	프로그램 내용	대상
탐 험 활 동	국토순 례 대행진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용기와 의지를 획득 *청소년 인권 선포	*도보로 국토 순례	청소년
	한강 도보순 례	그린페밀리 녹색소년단	*한강의 역사, 문화적 의미체험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생태 문제에 대한 관심 고취 *이타심과 협동심 고양	*걸으면서, 보면서 느끼는 한강 *음식물 재활용 센터 견학 *별자리 관찰, 곤충탐사 등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무인도 탐사	한국해양 소년단 연맹	*심신단련, 도전과 모험심 함양 *의지와 진취적인 기상 함양	*베이스캠프 설치, 무인도 탐사, 섬지도 그리기, 해양기능 및 어구제작, 해양탐구, 수산명물 시장 탐사 등	전국 청소년
	소년 탐험대	서울 YMCA	*진취적 기상, 독립심 함양 *공동생활, 각종 활동으로 공동체 정신과 협동의식 함양	*기본 훈련 캠프, 인공암벽, 등반캠프, 설악산 등반, 스킨스쿠버 캠프, 서바이벌, 오지탐험 캠프(년 5회)	초4~중 2
	평화를 향한 한걸음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금강산 평화캠프 *아름다운 금강산을 직접 탐험, 청정지역에서 해양활동	*금강산 등반, 해양활동, 평화 대행진, 우정의 선물 만들기, 북한 이해프로그램, 평화에슬레	청소년
	제주도 문화탐 방	한국청소년 지도사협회	*제주도 문화 체험, 이해 *특색 있는 지방문화를 탐사 *우정과 협동심, 극기심 배양	*제주도 지역 탐사 및 관람 *한라산 등반, 민속자연박물관 관람, 승마체험	청소년, 지도자
	국토 종단탐 험	한국 탐험연맹	*국토완주로 애국심, 국토애 *옛길탐사로 선조의 지혜 배움 *환경의 소중함 자각	*마라도에서부터 국토종단 *마라도, 제주도 일주 탐사 *옛길 흔적 탐사, 옛길 복원 *환경보호활동, 수상훈련, 산악훈련, 별자리 탐사, 항공스포츠교실, 오리엔티어링, 문화유적답사	초4~고
	우리땅 캠프	서울 YMCA	*독도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극기체험 통해 애국심, 국토애 *협동심, 단결심, 극기심 함양 *강인한 체력과 민족정신 함양	*동해안 일출, 해군/해병 체험, 독도 순회 프로그램, 독도 박물관 견학, 울릉도 홈스테이, 성인봉 등반, 바닷가 해양훈련	청소년

<표 3-15> 서울시 민간단체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현황(문화기획 및 활동)

구분	사업명	주최	사업기조	프로그램 내용	대상
문화 기획 및 활동	대학로 청소년축제	흥사단	*건강한 청소년 육성 *열린 문화 공간 제공	*먹거리마당, 바자회, 노래공연, 마술쇼, 공동체 놀이마당, 전통놀이, 청소년 축제	전국 청소년
	미지청소년 문화축제	미지센터	*청소년문화축제를 통해 청소년 문화 활동 활성화	*명동에서 거리축제, 공연, 전시 *청소년벼룩시장, 다큐제작	서울 청소년
	탁틴합합 페스티벌	내일 여성센터	*문화 활동과 청소년 성교육을 병행	*배틀/토너먼트 형식의 합합경연 대회	전국 청소년
	하자 영상축제	하자센터	*많은 사람들이 참여, 즐길 수 있는 영화제	*청소년 제작 다큐멘터리 상영, 감독과의 대화, 축하공연 등	서울 청소년
	청소년영상 페스티벌	서울 YMCA	*청소년이 만든 영상작품 공모전	*보도취재물, 다큐멘터리, 드라마, 캠페인 광고, 뮤직비디오 제작영상작품 응모 및 상영	초중고
	청소년 인권영화제	내일 여성센터	*청소년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대안제시	*뉴스, 드라마, 뮤직비디오, 다큐, 토크쇼, 만화, CF, 애니메이션 제작영상물 제출·상영	전국 청소년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한국청소년 동아리연맹	*청소년 동아리들의 교류와 선의를 경연 장 제공 *동아리활동의 수준향상,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 함양	*음악, 응원, 코스프레, 연극, 수화, 연주, 풍물, 영상, 문화, 과학발명 등의 분야에서 경쟁, 우수동아리 선발	13~18 세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문화대전	한국청소년 운동연합	*청소년동아리들의 폭넓은 교류와 선의의 경연장 제공	*힙합댄스, 응원 댄스, 풍물, 그룹사운드, 영상, 만화, 캐릭터, 포스터 부문 경쟁, 우수작 선정	전국 청소년
	청소년문화 예술대회	한국청소년 진흥원	*재능 있는 청소년예술인 발굴	*국악, 무용, 모델, 댄스, 미술, 서예, 웅변, 태권도, 합기도, 응원 등 경연대회	전국 청소년
	청소년 전통예술 경연대회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청소년 공동체 의식 함양	*국악연주, 탈춤, 사물놀이, 풍물, 살풀이, 장고춤, 가야금 병창, 합창 등 의 분야에서 경연대회	전국 청소년
	ssro.net 아카데미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청소년폭력 예방 *영상과 관련한 문화교육	*영상기획, 연출, 촬영, 편집 등 다큐멘터리에 관한 총체적 교육	전국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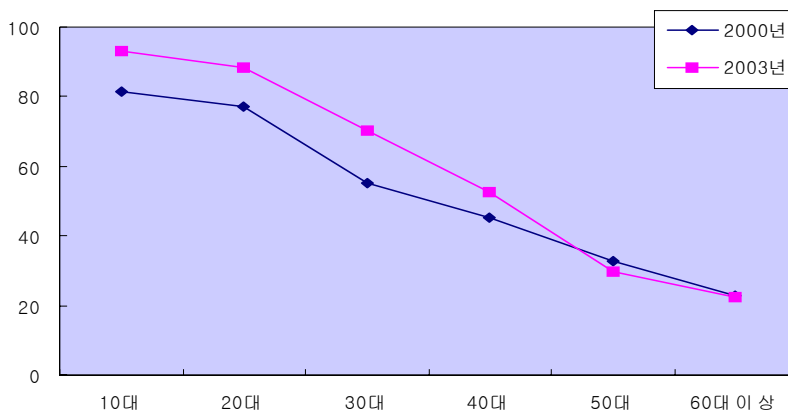
## 제4장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실태

### 제1절 서울시 청소년들의 문화향수 실태2)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실태를 보면, 우선 예술행사 관람율은 <그림 4-1>에서 보듯이 2003년 약 93%로, 2000년 약 80%보다 증가추세에 있고, 모든 연령층 중에서 10대 청소년층의 예술행사 관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매우 높은 10대의 영화 관람률이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전시 및 공연 관람을 과제로 부여한 탓도 있다.

<그림 4-1> 연령에 따른 예술행사 관람률

단위: %



10대 청소년들의 예술장르별 연간 관람율을 보면, 영화(86.4%) > 대중가요콘서트(20.4%) > 미술전시회(18.4%) > 연극(15.5%) > 음악회·오페라(10.7%) 순으로 영화를 제외하고는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비중이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전체 연령층과 비교할 때, 연극(20대 비중이 더 높음)을 제외한 모든 장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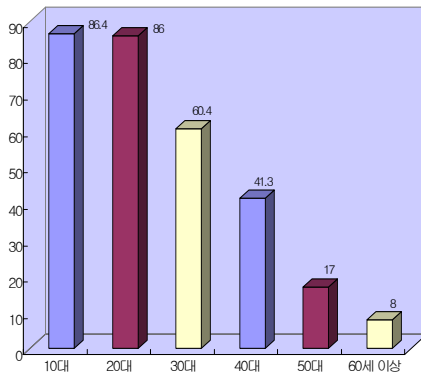
2) 이하의 청소년 문화향수 실태조사 자료는 2003년 문화관광부의 문화향수실태조사와 2004년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서울청소년종합실태조사 자료를 인용한 것임

10대 청소년의 향유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 청소년이 주요 문화 향유층임을 알 수 있다(그림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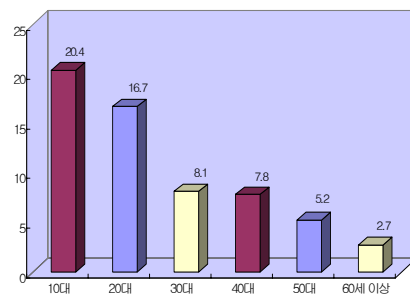
<그림 4-2> 장르별 예술행사 연간 관람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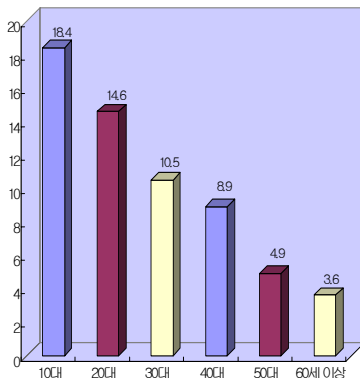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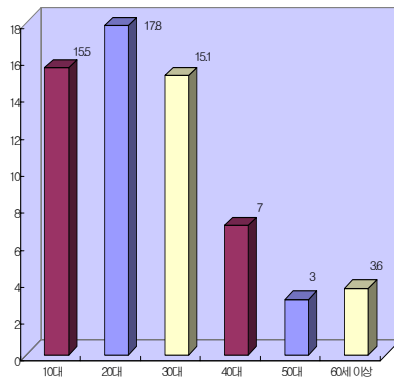
(가요콘서트)



(미술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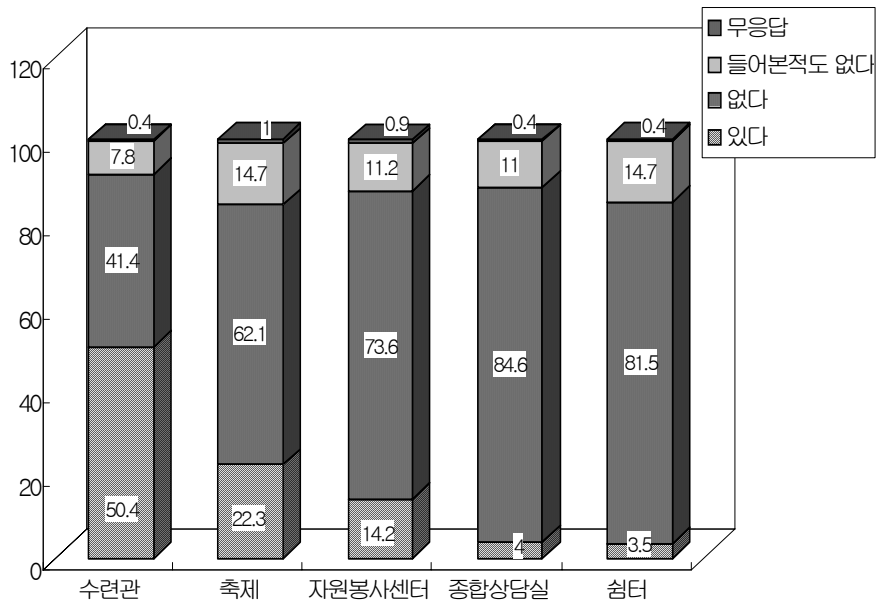
(연극)



서울시 청소년들의 문화관련 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수련관(50.4%) > 축제(22.3%) > 자원봉사센터(14.2%) > 종합상담실(4.0%) > 컴퓨터(3.5%) 순으로 수련관을 제외하고는 이용경험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문화시설 이용경험이

없거나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의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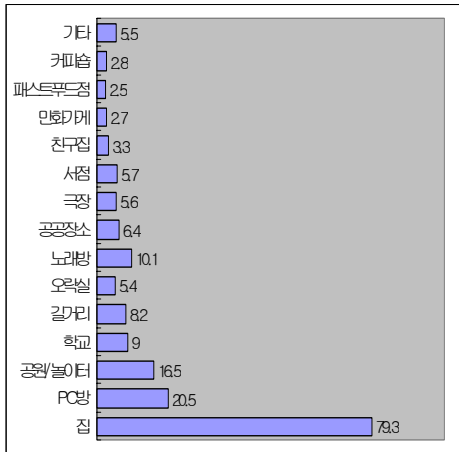
<그림 4-3> 서울시 청소년들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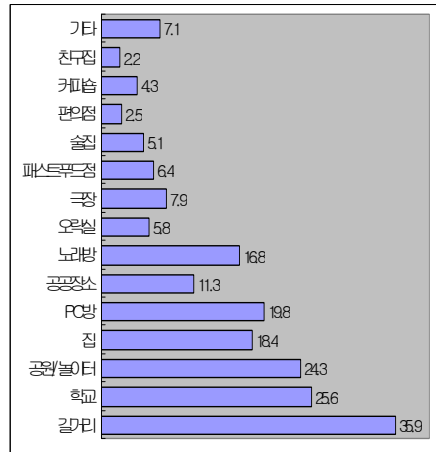
서울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현황을 보면,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집(79.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PC방(20.5%) > 공원 및 놀이터(16.5%) > 노래방(10.1%) > 학교(9.0%) > 길거리(8.2%) > 공공장소(6.4%) > 서점(5.7%) > 극장(5.6%) > 오락실(5.4%) > 친구집(3.3%) > 커피숍(2.8%) > 만화가게(2.7%) > 패스트푸드점(2.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여가장소로는 길거리(35.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학교(25.6%) > 공원 및 놀이터(24.3%) > PC방(19.8%) > 집(18.4%) > 노래방(16.8%) > 공공장소(11.3%) > 극장(7.9%) > 패스트푸드점(6.4%) > 술집(5.1%) > 커피숍(4.3%) > 편의점(2.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4 참조)

<그림 4-4> 서울시 청소년들의 여가 활용 공간 (단위: %)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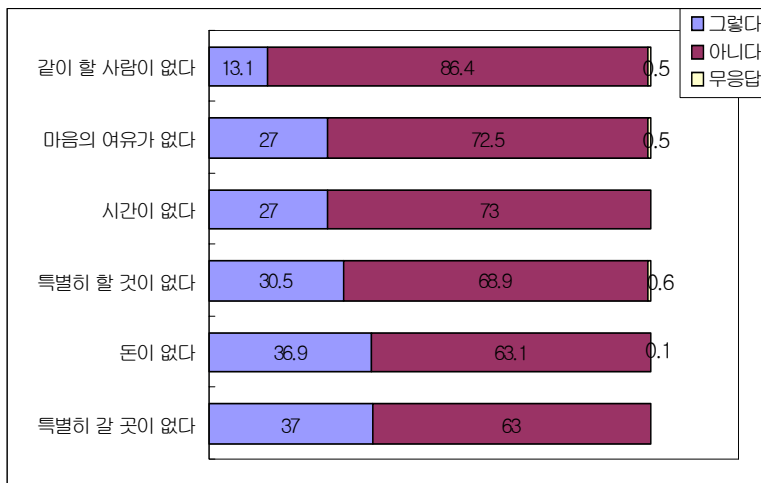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소)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애로사항으로는, 특별히 갈 곳이 없다(37.0%) > 돈이 없다(36.9%) > 특별히 할 것이 없다(30.5%) > 시간이 없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각각 27.0%) > 같이 할 사람이 없다(13.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5).

<그림 4-5> 서울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애로사항 (단위: %)



이상의 청소년 문화향수 실태 결과를 통해 볼 때, 앞으로 다양한 여가공간과 프로그램 개발, 집근처 지역커뮤니티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과 프로그램 개발, 길거리·학교·공원 및 놀이터 등 공공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제2절 서울시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활동 실태

서울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운영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민간단체(YMCA, 품, 청소년동아리연합회 등)’, ‘학내 동아리’, ‘또래모임(인터넷 동호회, 거리공연팀)’ 등 4가지 유형의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이 곳에서 적극적으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총 31명의 청소년들을(별첨 표3 참조)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문화활동 참여계기, 활동유형, 만족도 및 욕구, 장애요인 등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참여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인터뷰 대상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조사내용은 <표 4-1>, <표 4-2>와 같다.

<표 4-1> 심층 인터뷰 대상 인적사항

	이름	성별	나이	학교	거주지	활동유형	활동 공간
1	수봉	여	18	인문고	상도동	영상제작	정부운영 청소년 시설 (문화의 집)
2	은지	여	18	인문고	창동	청소년위원회	
3	재민	남	18	인문고	상계동	밴드/ 동아리임원단	
4	재은	여	18	인문고	중계동	문화기획단	
5	지희	여	18	실업고	의정부	방송반	
6	창울	남	18	인문고	방배동	댄스	
7	현재	여	18	인문고	창동	문화기획단	



	이름	성별	나이	학교	거주지	활동유형	활동 공간
8	가람	여	17	인문고	마포	축제기획단	청소년 관련 NGO
9	윤진	여	18	실업고	은평구	연극	
10	지은	여	18	예술고	방배동	연극	
11	진아	여	18	대안학교	장위동	연극	
12	판	남	18	탈학교	대학로	축제기획단	
13	광우	남	16	중학교	홍은동	풍물	학내 동아리
14	미리	여	19	실업고	신림동	응원단	
15	미리암	여	16	중학교	북가좌동	밴드	
16	애경	여	16	중학교	북가좌동	노래, 마임	
17	예은	여	16	중학교	남가좌동	밴드	
18	우영	남	16	중학교	홍은동	풍물	
19	윤호	남	17	인문고	길음동	밴드	
20	지울	여	16	중학교	남가좌동	합창단	
21	태영	남	19	인문고	용두동	밴드	
22	혜련	여	16	중학교	남가좌동	합창단	
23	혜린	여	16	중학교	북가좌동	노래, 마임	
24	혜선	여	16	중학교	남가좌동	합창단	
25	홍준	남	19	인문고	미아동	밴드	
26	검	남	20	탈학교	대학로	영상제작	또래모임
27	선영	여	18	실업고	사당동	댄스	
28	이슬	여	18	인문고	독산동	댄스	
29	서아	여	18	인문고	독산동	댄스	
30	하니	여	20	대학교	독산동	댄스	
31	성수	남	20	대학교	가산동	댄스	

<표 4-2> 심층인터뷰 내용

질문유형	세부 질문내용
기본질문	-인구통계학적 배경 (나이, 성별, 학교, 가족관계 및 부모님 직업, 거주지 등)
일상생활	-평일과 주말의 하루 일과와 동선/ time-geography
문화 활동 참여실태	-일상적인 놀이문화와 놀이공간, 현재하고 있는 문화 활동 -문화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 및 동기 -문화 활동에 관한 전문적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 -고급문화(발레공연,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등) 향유 경험 유무
문화 활동 장애요인	-다양한 문화 활동 참여의 장애요인/ 문제점 및 개선점 -현재 하고 있는 문화 활동의 장애요인/ 문제점 및 개선점
문화 활동 만족도 및 욕구	-현재 하고 있는 문화 활동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현재 하고 있는 문화 활동의 의미 및 중요성 -현재 하고 있는 문화 활동을 지속할 의향, 자신의 전망과 연결지점 -다른 문화 활동에 참여할 계획 여부, 원하는 문화 활동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 1. 서울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놀이문화

### 1) 일상생활

서울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은 상당히 단조롭다. 기껏해야 ‘학교-학원-집’을 오갈뿐이며 ‘기상→등교→수업→학원→귀가→컴퓨터 및 숙제→취침’이라는 반복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학교생활, 그 중에서도 특히 수업이 청소년의 일상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업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귀가 후 TV보기, 컴퓨터 하기 등이다. 평일 청소년들의 time schedule을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표 4-3> 서울 청소년들의 time schedule (평일)

시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01				
1	수봉	기상	등교	수업								학원 or 촬영		귀가/컴퓨터			취침							
5	지희	기상	등교	방송	수업	방송	수업					방송		귀가/숙제/인터넷			취침							
6	창울	기상	등교	수업								춤		과외		귀가		취침						
8	기람	기상	등교	수업								독서실				귀가/컴퓨터		취침						
9	윤진	→	기상	등교	수업								귀가/컴퓨터							취침				
10	지은	기상	등교	수업								연극		개인레슨		귀가		취침						
11	진아	기상	메일확인/등교	수업								대학로 극장/공연준비				공연/뒷정리		귀가/공부		취침				
13	광우	→	기상	등교	수업								풍물		학원		귀가/TV시청		취침					
14	미리	기상	등교	IBS	수업								응원		귀가/컴퓨터학원		컴퓨터/숙제		취침					
15	미리엄	→	기상	등교	수업				밴드	수업		귀가/피아노학원		귀가/숙제/독서			취침							
16	애경	→	기상	등교	수업				마임	수업		마임		귀가/TV시청/컴퓨터			취침							
17	예은	기상	등교	밴드	수업				밴드	수업		밴드		귀가/학원		귀가/휴식		취침						
18	우영	→	기상	등교	수업								풍물		귀가/학원		귀가		취침					
19	윤호	기상	등교	기도	수업	밴드	수업					밴드				귀가/숙제			취침					
20	지울	기상	등교	수업				합창	수업		귀가/학원		귀가/TV시청/컴퓨터				취침							
21	태영	기상	등교	수업				밴드	수업					밴드		음악학원		귀가/숙제		취침				
22	해련	→	기상	등교	수업				합창	수업		댄스학원		귀가/TV시청/컴퓨터					취침					
23	해린	기상	등교	컴퓨터	수업				노래		수업		노래		미술학원		귀가/숙제/컴퓨터		취침					
24	해선	기상	등교	수업								합창		수업		귀가/TV시청/숙제/컴퓨터							취침	
25	홍준	기상	등교	기도	수업	밴드	수업					밴드		귀가/악기연습/독서					취침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평일에 하루 평균 3시간 정도이고, 그나마 이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 학교 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점심 시간이나 방과 후 1-2시간을 연습시간으로 이용한다.

또한 문화활동 시간에서 청소년들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면, 실업계 혹은 예술계나 대안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 인문계 청소년들 보다 많은 시간을 문화 활동에 할애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를 진학·취업 등의 전망으로 삼은 청소년들의 경우도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문화 활동에 할애하고 있다.

한편, 주말 청소년들의 time schedule은 매우 단순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휴식을 취하는데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단체 및 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토요일 5-6시간을 문화 활동에 할애하고 있다. 그 외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영화관람 등 기타의 여가생활도 주말에 즐긴다(표 4-4 참조).

<표 4-4> 서울 청소년들의 time schedule (토요일)

시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01
1	수봉	기상	등교		수업			시설에서 방송교육							귀가/TV보기/컴퓨터					취침
5	지희	기상	등교	방송	수업			시설에서 연합회의 참가 및 교육							귀가/TV보기/컴퓨터					취침
6	창울	기상	등교		수업			시설에서 춤 연습(댄스학원)							귀가/음악듣기					취침
8	가람	기상	등교		수업			시설에서 연극 연습	친구만남						귀가/TV보기					취침
9	윤진	기상	등교		수업			시설에서 연극 연습	친구만남						귀가/TV보기					취침
10	지은		기상		휴식			시설에서 연극 교육 및 연습	친구만남/영화						귀가/컴퓨터					취침
11	진아	기상	등교		수업			연극 연습 및 공연							귀가/독서					취침
14	미리	기상	등교	자습	수업			아외 공연							귀가/TV보기/컴퓨터					취침

탈학교 청소년인의 경우는 일상의 주된 활동이 문화 활동이 되고 있다. 이들은 외부적으로 강제된 스케줄이 없고,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시간과 일을 결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문화 활동가로서 스스로의 전망을 찾아나가고 있는 이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문화기획 및 문화비평과 관련한 활동으로 꾸려나가고 있다. 탈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에 참여하거나, 문화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프로젝트팀을 스스로 구성하거나, 다양한 문화기획 활동에 참여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에 일상에서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최대로 보장받고 있는 반면, 적당한 지원책이나 공간이 부재하기에 따르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특히 전망으로 삼고 있는 문화 활동과 자신의 생계를 보장할 ‘일’이 괴리되면서 겪게 되는 갈등도 만만치 않다.

## 2) 놀이문화와 공간

사실상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라 할 만한 것들이 그다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놀이공간 역시 마찬가지이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소비문화·소비공간이 청소년들의 놀이와 놀이터를 잠식한 이래로 청소년들은 마땅히 놀만 한 곳도, 놀 만한 꺼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행하고 있는 청소년들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시설 및 단체를 통해서 행하는 ‘문화 활동’과 친구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놀이문화’가 다른 것이다.

<표 4-5> 서울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와 공간

번호	이름	학교지역	거주지	놀이공간	놀이문화
1	수봉	동작구사당동	동작구상도동	명동,동대문,사당동	식사,쇼핑,노래방
5	지희	강북구미아동	의정부	동대문,명동,노원,성신여대	노래방,PC방,카페,극장,쇼핑
6	창울	서초구방배동	서초구방배동	공원	친구들과 대화
8	가람	서대문구북아현동	마포구	이대,신촌	노래방,보드카페
9	윤진	은평구대조동	은평구연신내	연신내,명동	노래방,쇼핑,연극관람
10	지은	구로구시흥동	서초구방배동	코엑스,명동	영화,식사,쇼핑
11	진아	강북구수유동	성북구장위동	명동(미지), 대학로	식사,노래방,영화,연극,공연
12	판	-	종로구대학로	수유동, 대학로,홍대	영화관람,미술관,충추기,쇼핑
14	미리	금천구시흥동	관악구신림동	동대문,성신여대,이대,신림	카페,스티커사집,쇼핑,노래방
15	미리엄	서대문구홍은3동	서대문구북가좌	교회	친구들과 대화,식사
21	태영	종로구혜화동	동대문구용두동	동대문	쇼핑
23	혜린	서대문구홍은3동	서대문구북가좌	명지대	식사,쇼핑
24	혜선	서대문구홍은3동	서대문구남가좌	이대,신촌,명동,동대문	노래방,식사,쇼핑
25	홍준	종로구혜화동	강북구미아동	학교 근처	식사
26	겸	-	종로구대학로	대학로,안국,광화문,명동	

청소년들의 주된 놀이공간으로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명동, 동대문, 이대나 신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쇼핑몰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로 청소년들 역시 쇼핑을 목적으로 이 공간을 찾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는 놀이로는 노래방 가기, 쇼핑하기, 식사나 군것질하기 등이 주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동대문이나 명동을 찾는 이유는 그곳이 변화가이고 또래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지적하듯이 이러한 현실은 현대의 문화공간이 모두 ‘성인을 중심으로’,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 문화의 대부분이 ‘소비문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표 4-5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학교 청소년의 경우는 소비위주의 청소년놀이문화에 대해 비판하면서, 다른 놀이문화를 고민한다. 하지만 공간 및 시설의 부재, 소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메커니즘 속에서 이들이 대안적인 청소년문화를 고민하기란 쉽지만은 않다. 다만, 이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NGO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며, 그를 충분히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소비 문화적 경향 이외에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서 드러나는 또다른 특징은 문화의 편식 현상이다. 청소년들은 영화를 제외한 문화 전시 및 공연 관람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다. 그러한 문화예술을 행하는 공간이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느껴지고, 관람비용이 비싸며, 오페라나 연극과 같은 문화예술이 청소년들의 문화취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전망과 관련된 경우, 고급문화예술 관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대학축제는 청소년들이 무료로 많은 공연들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하지만 그러한 기회 이외에 청소년들이 공연을 관람하기에는 관람료가 너무 비싸다. 그럼에도 이들이 연극관람에 흥미를 보이는 이유는 연극을 자신의 전망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연예술에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과는 달리 문화예술에 친숙함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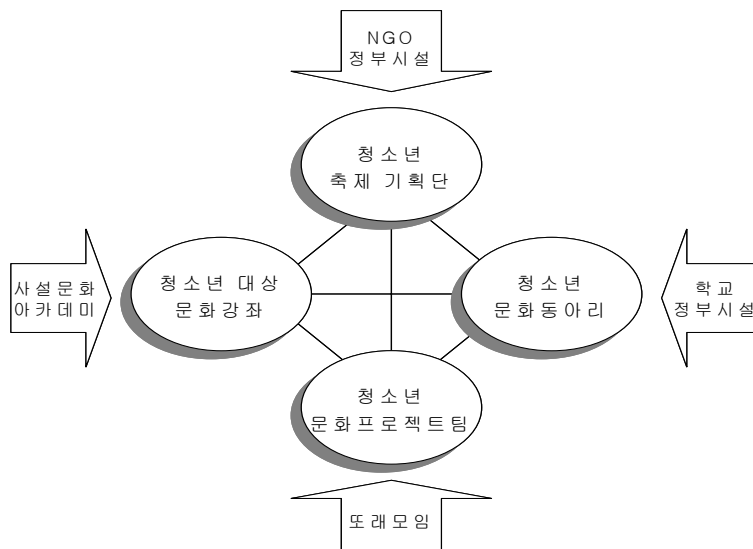
소년 민간단체를 통해 접했기 때문이다.

## 2. 서울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과 만족도

### 1) 문화활동 유형 및 내용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문화활동은 크게 ‘동아리 활동’, 축제기획단이나 영화기획단과 같은 ‘청소년문화기획단 활동’, 그리고 청소년들만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문화프로젝트팀 활동’, ‘사설학원이나 개인레슨을 통한 문화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그림 4-6).

<그림 4-6> 서울시 청소년들의 주체적 문화활동 유형



동아리 활동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기획단 활동은 청소년 민간단체나 정부운영 청소년 시설에서 기획·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민간재단이나 기업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문화프로젝트팀은 청소년들만

의 또래모임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가 동아리 활동이나 기획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동아리의 경우, 정기연습이 주된 활동이며, 학교 공간을 이용한다. 점심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1-2시간 정기연습을 행하고, 때때로 학교축제나 외부 행사에서 공연을 벌이기도 한다. 풍물, 영상, 밴드, 방송이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이고 그 밖에도 합창, 마임, 연극부가 있다.

청소년 문화시설이나 청소년 민간단체의 경우, 여기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띤다. 관심분야의 청소년들이 모여 동아리를 구성하거나 혹은 이미 구성한 동아리들이 시설 내 연습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한 예다. 그리고 또 다른 양상은 축제기획단과 같은 문화기획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청소년들은 스스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학교나 시설 혹은 단체 밖 또래모임의 경우, 그들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문화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대학로 혹은 동대문과 같은 거리무대를 활용하여 문화 활동을 행한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끼리 모여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비슷한 관심을 지닌 또래 동호회를 구성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마땅히 소속된 기관 및 단체도, 성인 지도자도 없기 때문에 활동의 양상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적극적이다.

## (2) 문화활동을 통한 만족도

이와 같은 주체적 문화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긍정성을 발견하고 있다. 또래문화 형성을 통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형성, 공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 및 색다른 경험, 다른 또래들과의 구별 짓기를 통한 자신감 획득, 주체적인 문화 활동 경험을 통한 자율성과 적극성 자각, 진로 및 전망에 대한 도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은 청소년들의 상황과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탈학교 청소년들의 경우는, 문화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긍정성으로 평가된다. 탈학교 청소년들은 많은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 ‘학교’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좀처럼 또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따라서 같은 문화적 관심과 욕구를 지니고 있는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문화활동의 장이 중요하게 다가오며, 그 까닭에 현재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문화 활동의 긍정성을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획득에서 찾고 있다.

학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마찬가지로 선·후배의 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의 돈독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그보다도 그들은 다른 청소년들과의 ‘구별 짓기’를 통한 자신감 획득이 문화 활동을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보물이라고 이야기한다. 성적을 중심으로 질서 지워지는 학교체계는 모범생 중심으로 돌아간다. 때문에 모범생이 아닌 청소년들은 언제나 뒤처지게 마련이다. 여기서 다른 또래 청소년들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소위 ‘될 수 있는’ 방법이 모범생들이 지니지 못한 색다른 ‘문화자본’을 획득하는 길이다.

자발성과 자율성이 가장 중요한 특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문화기획단 활동 청소년의 경우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존재로 간주되어왔다. 그 까닭에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을 주체적으로 선택·결정하고 해결하는 데 서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관심, 취향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기획하며, 실현시킬 수 있는 문화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기쁨과 만족감을 준다. 나아가 학교 이외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가 전혀 없던 청소년들에게 타인과 혹은 사회와 관계 맺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 3. 서울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장애요인과 문화육구

#### 1) 문화활동 장애요인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주체적 문화활동의 제약요인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사회 인식의 부재.

교사나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체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모범적인 ‘학생’이 되길 원한다. 때문에 학업 이외의 활동은 대학입학 후에나 허락될 수 있는 사치로 간주된다. 그 만큼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은 ‘탈선’ 행위가 되고, 주체적 문화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문제아’가 되곤 한다.

둘째, 청소년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부재.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자비를 들여 충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모님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문화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연습 공간 및 시설, 공연에 들어가는 여타의 비용에 대해 전혀 지원이 없다. 이러한 지원 부재는 청소년 문화 활동을 교과 과정 이외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셋째, 문화교육의 부재.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문화 활동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길 원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문화교육을 책임져야 할 학교는 문화교육에 무관심하다. 커리큘럼 내 문화교육의 부족, 문화예술 담당교사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다. 더불어 청소년 문화교육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부재, 성인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커리큘럼 및 강의시간 그리고 강의수준, 비싼 교육비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넷째, 문화시설과 활동기회의 부족.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 활동 성과물을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과 자신들의 기량을 기를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다섯째, 청소년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기존의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들은 홍보의 부족, 성인을 중심으로 편성된 프로그램과 이용 시간대, 형식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사업진행방식,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지역내 네트워크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 2) 문화육구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원하는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혹은 문화 환경은 어떤 것일까. 청소년들은 문화 환경 개선 및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아홉가지를 꼽는다.

첫째, 청소년 문화활동에 관한 사회인식의 변화

둘째, 청소년 전용공연시설을 비롯한 문화시설 및 공간 마련

셋째, 청소년 문화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채널 구축

넷째, 문화예술 관람에 있어 청소년 할인제 확대적용

다섯째, 문화 활동에 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문화교육프로그램 제공

여섯째, 학내 문화 관련 커리큘럼 확충

일곱째, 청소년 문화와 관련한 성인·청소년 전문가 양성

여덟째,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및 정책 참여 기회 확,

아홉째, 시설 및 교육체계의 지역 중심 재배치를 통한 접근성 강화

### 제3절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사례

서울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현황 및 욕구를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한정된 시설 및 자원과 청소년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 및 기관을 특성에 맞게 적절히 연계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시설 및 기관이 보유한 자원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지역 내 다른 시설 및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청소년 문화 사업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서울 및 타 지역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모델 사례들은 각 지역의 특성과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자원에 따라,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의 주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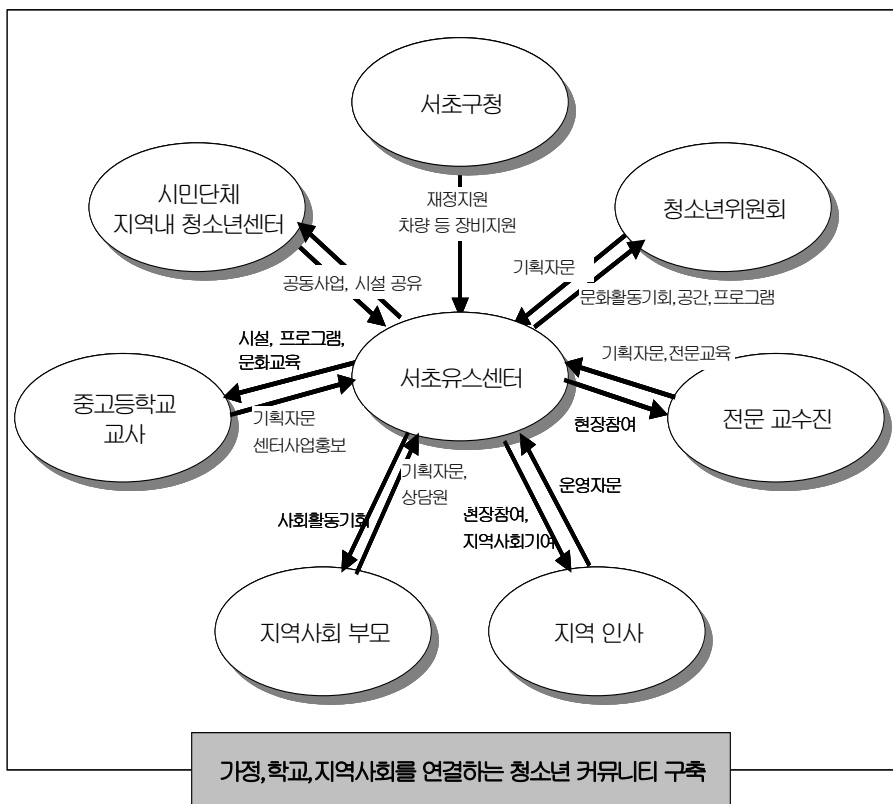
#### 1. 서초구 ‘구립 서초 유스센터’ 모델

‘구립 서초 유스센터’가 주체로 구성된 네트워크 모델은 주로 인적 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003년 하반기에 교사·학부모·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초구 지역욕구 조사 및 평가를 통해, 서초 유스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위촉하였다. 먼저 학교 교장단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를 위촉했으며, 교수와 같은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모임과 학부모 모임을 구성했다. 또한 청소년 위원회 역시 발족했다. 그 결과 현재 총 5개의 위원회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지역 내 타 청소년 시설, 서초구청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처럼 서초 유스센터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로 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한

자문, 교육·상담을 위한 인력풀을 형성하고자 한다. 서초 유스센터가 내세우는 네트워크 구성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율적인 문화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운동 전개, 서초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한 학교와의 유대관계 강화, 지역 내의 탄탄한 인적구성 인프라 활용,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확보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 전개,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21세기형 청소년시설 모델 제시 등이다.

<그림 4-7> 구립 서초 유스센터 네트워크 모델



서초 유스센터가 구성한 네트워크 모델의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인근 중·고등학교 교장단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는 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

인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때때로 교육이나 사업의 진행을 도와준다. 특히 CA  
이나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같은 학교 연계사업을 공동으로 기획·추진한다. 둘  
째, 구 의원이나 지역인사들의 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 내 자원을 동원하거나, 센터 사업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  
을 준다. 셋째, 지역 내 대학교의 청소년 관련 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며 직접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교사가  
되기도 한다. 넷째,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전체적인 문화 사업에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모임  
은 센터 내 상담프로그램에서 상담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부적응 청소년들  
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에서 상담을 맡고 있다. 이 외에 구청은 각종 재정 및 장  
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다른 시민단체 및 청소년단체와는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이와 같은 각 커뮤니티는 수시 회의를 통해 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에 개입하며, 전체 네트워크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진행된다.

이 모델의 특징은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연계하여, 센터에서 실시하  
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절히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현재 센터에  
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는 전문 교수진이 교육  
을 담당하며,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돕는 ‘초등인성교실’에서는 학부모가 상담  
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에서는 교사가 멘  
토의 역할을 하며,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대학생 자원 활동가들이  
동아리 교육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 또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네트워크 구성이 전적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 주체간 네트워크 및 소통이 부재하  
다는 점이다. 센터와의 소통 통로만이 있을 뿐 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들간의 다양한 소통 채널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네트워크 구성  
자체가 지나치게 느슨하며, 자칫 각 구성 주체들은 ‘자원봉사’ 수준에 그치고 말  
우려가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인적 인프라의 구성은 뛰어나지만, 지역 내 문화시설과의

네트워크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센터의 부족한 시설을 보충해줄만한 지역 내 문화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 외에 인적 인프라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문제점도 있는데, 시설 및 단체가 갖는 사업 추진력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 2. 강북구 ‘청소년 문화공동체 품’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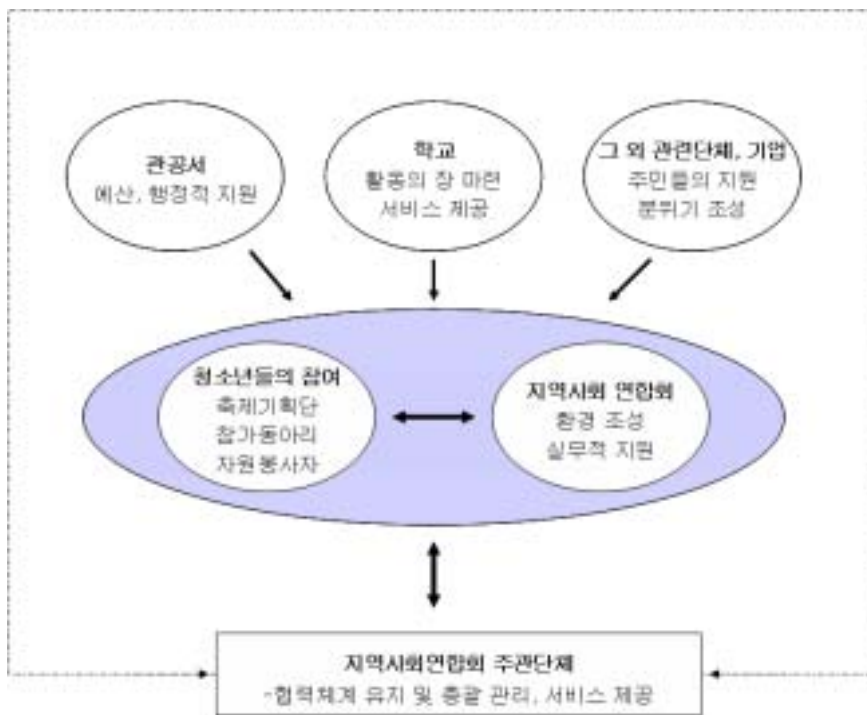
‘서초 유스센터’가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모델을 지니고 있다면, ‘품’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설 및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 지역에 기반 한 청소년 문화운동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품’의 네트워크 구성 목적은, 지역사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의 요구에 따른 환경과의 연계, 그리고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서비스 체계의 연계가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문화 사업에의 청소년 참여율 저조, 프로그램을 위한 지도자와 공간의 부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들의 협조체제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지역사회에 산재하고 있는 자원들을 지역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구성하고 조직해나가기 위한 것이 바로 네트워크 구성이다(품, 2002: 92).

‘품’은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계기로서 청소년 문화사업, 특히 청소년 축제를 제안한다. 예컨대 ‘품’은 강북 청소년 문화축제인 ‘추락’을 통해 지역사회 내 중·고등학교,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단체 및 청소년단체, 자치 기관,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기타 문화시설 등을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네트워크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축제를 기획·운영하는 ‘운영주체’와 직·간접적으로 청소년 축제를 지원하는 ‘지원주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운영주체는 청소년 축제기획단, 축제 참가 동아리들, 축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청소년 팀’과 지역복지관, 시민단체, 문화의 집, 수련관, 강북구청·교육청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연합회’이다. 여기서 축제기획단은 지역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지원을 통

해 구성되며, 참가동아리는 학내 동아리나 지역 내 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로 이루어진다. 또한 기획 자원봉사자는 문화활동 동아리가 아닌 청소년들 중에서 기획단 활동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한다. 그리고 지원주체는 지역 관공서, 지역 내 학교, 기업, 주민자치기구 등이다.

<그림 4-8> 청소년 문화공동체 ‘품’ 네트워크 모델



‘품’이 구성한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은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에서는 청소년들을 네트워크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내 단체 및 시설들을 끊임없이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있다. 전자를 통한 효과는 청소년들의 커뮤니티를 구성,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고 동시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반면 후자의 실무자 모임은 일종의 ‘협의체’로 발전하여 지속되고 있는데 각각의 단체 및 시설이 지니는 자원의 특징에 따라 상이한 역할을 담당, 서로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예컨대 현재 ‘강북북지협의회’가 지역사회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열린사회북부시민회’와 ‘품’이 협의체의 간사 역할을 담당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 내 청소년 단체 및 시설,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자신들의 월별 사업계획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각 사업마다 각자의 자원과 특징에 맞는 역할을 함께 부담하고 있다. 동시에 협의체는 풍요로운 인력풀이 되고 있는데, 학교 CA활동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요구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품’이 보여주는 네트워크 모델에서 다른 중요한 점은 자치구의 연계 지점이다. ‘추락’이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치구의 협조가 커다란 힘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구청은 ‘추락’을 위한 행사 공간 및 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성북교육청의 지원은 학교들 간 네트워크 구성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그 밖에 ‘품’은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모색하여 부족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과 연계하여 시설·기자재·공간의 부족함을 상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네트워크 구성에서도 역시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인적자원 구성에 요구되는 재정의 부족이고, 또 다른 문제는 공간 및 시설 사용과 관련한 부분이다. 청소년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물적·인적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네트워크 구성 자체에 소요되는 재정적 비용이나, 청소년 문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요구되는 인력비는 전적으로 네트워크 구성 주체가 떠안고 있다. 더불어 공간 및 시설 확보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 3. 부천시 ‘부천 청소년수련관’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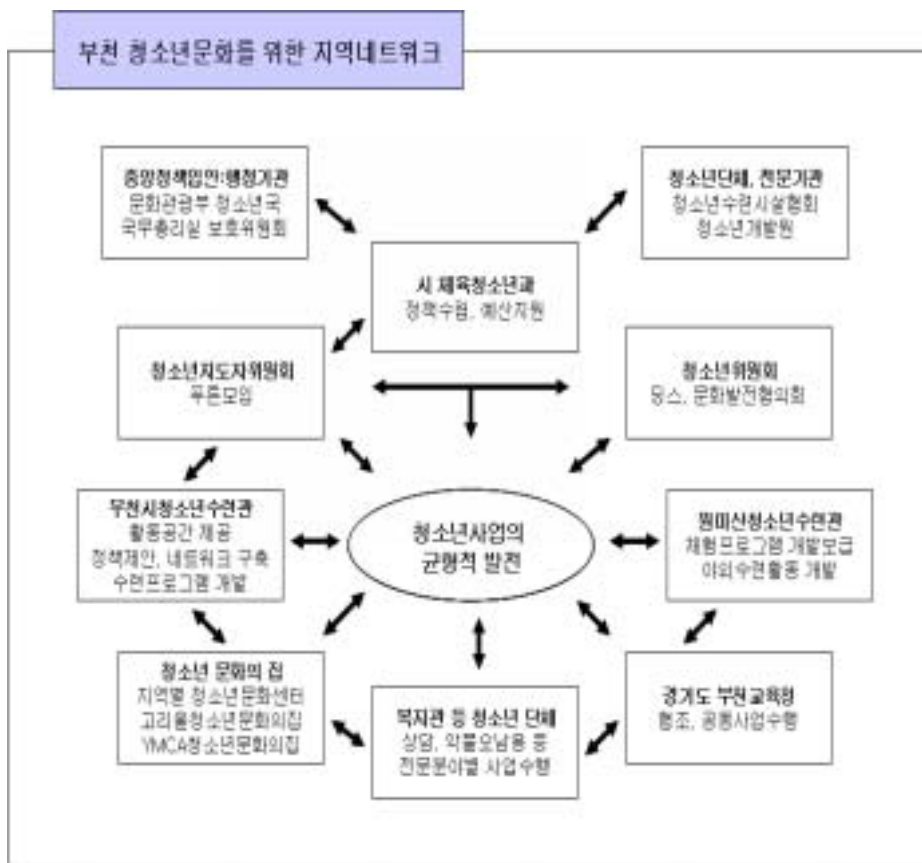
‘부천 청소년 수련관’의 네트워크는 매우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부천 청소년 수련관’ 역시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모델이다. 하지만 ‘품’에서 살펴본 네트워크 모델과 다른 점은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여타의 문화시설 및 문화재단이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부천시 청소년 문화정책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부천시의 청소년 문화정책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지역성’과 ‘네트워크’의 강조다. 청소년 사업 인프라 구축, 지역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참여 확산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부천시는 ‘중핵화’, ‘파트너십’, ‘지역화’, ‘거점화’, ‘네트워크’, ‘공공책임’을 추진 전략으로 세우고 있다. 여기서 특히 청소년과 성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파트너십’, 지역청소년의 요구와 지역특성에 기반한 사업추진과 지역 정체성 확보를 강조하는 ‘지역화’, 지역거점·문화자원 인프라·인적자원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네트워크’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화정책 하에서 ‘부천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고 있다. 부천의 네트워크 구성의 계기는 ‘품’과 유사하다. ‘부천 청소년수련관’ 역시도 특정 사업을 계기로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다. ‘차 없는 거리’ 사업 진행 과정 속에서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청소년 문화 사업을 기획하고자 네트워크 구성을 모색한 것이다.

현재 ‘부천 청소년수련관’이 구성한 네트워크 참여 주체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단체, 사회복지 시설, 시 체육청소년과, 부천 교육청,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 모임인 ‘푸른 모임’과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위원회’가 있다. 여기서 ‘부천 청소년수련관’은 네트워크 구성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 복지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각 시설 및 단체의 특징에 따라 청소년 연합 동아리를 담당하여 그들을 지원, 교육하고 있다. 학내 동아리를 위한 마땅한 지원과 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러한 동아리들을 연합 동아리로 묶어내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청소년을 연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합 동아리들의 회장단 모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청소년 문화 웹 사이트인 ‘딩

가당'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4-9> 부천 청소년수련관 네트워크 모델



이 모델의 최대 장점은 구성된 네트워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위와 같은 네트워크 모임은 지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지역 사회 문화행사에 대한 최적의 정보 채널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홍보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상당부분 이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부천 청소년수련관'의 신념과 활동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시의 방침 덕이기도 하다. 현재 부천시에는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시민사회단체, 복지관, 청소년 상담실, 쉼터 등 23개 기관의 청소년 지도자 및 사회사업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푸른 모임’에 약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충분한 지원이라 볼 수는 없지만, 네트워크 구성을 하나의 독립된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네트워크의 또 다른 장점은 각 기관 및 단체가 자신들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면서 ‘청소년 문화’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집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여성단체는 청소년 성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운동 단체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문화단체 및 시설과 연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델 역시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문화시설 및 여타 문화시설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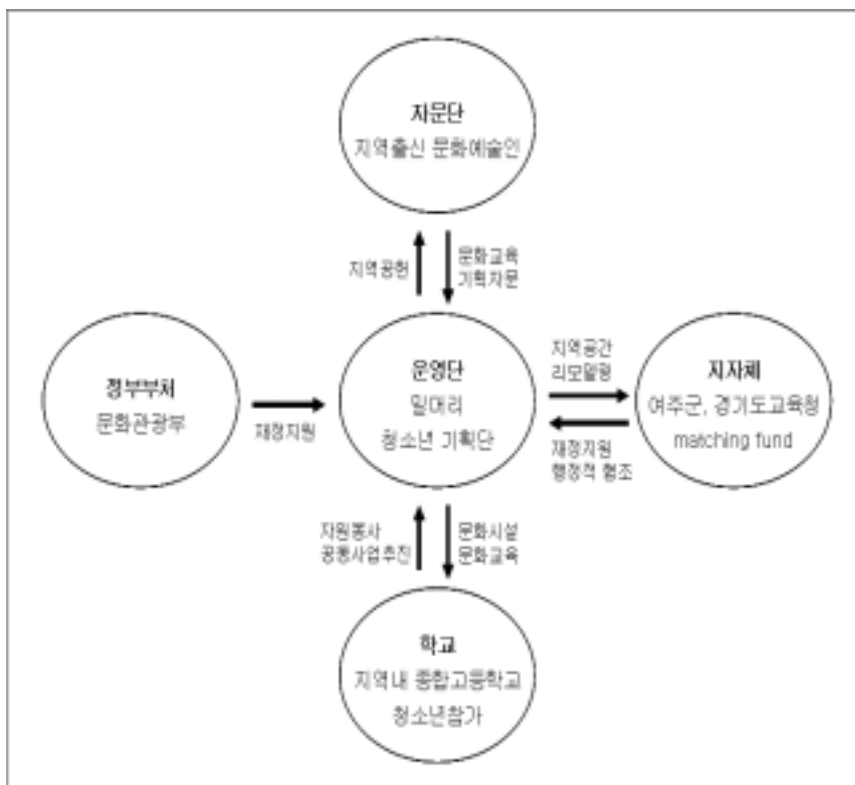
#### 4. 여주시 ‘밀머리 미술학교’ 모델

여주시 ‘밀머리 미술학교’가 제시한 네트워크는 지역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구성되었다. 앞서 제시한 다른 모델들도 마찬가지지만, ‘밀머리 미술학교’의 네트워크 모델은 특히 지역적 성격이 강하다. 네트워크 구성의 계기가 되었던 ‘고구마 프로젝트’가 지역 내 문화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여주시는 문화시설은 부족하지만 문화 유적이 많고, 인적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고구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그리고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적 주체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네트워크의 주체는 지역 출신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자문단, 여주군과 경기도 교육청, 문화관광부, 지역 내 학교다. 여기서 특히 지역 출신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에는 농민, 도자가, 민예충이나 환경연합 활동가, 지역 공무원 등 현재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자들과 미술, 건축, 디자인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출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고구마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역사, 환경, 미술, 건축, 디자인에 관한 문화교육을 총 12회에 걸쳐 실시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여주시 관광자원인 ‘여주대교’를 리모델링 하는 작업에 실질적인 자문을 담당했다.

<그림 4-10> 밀머리 미술학교 네트워크 모델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이 지자체, 그리고 지역과 직접적인 연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즉, 밀머리 청소년 기획단은 지자체의 공간을 직접 리모델링 하는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자체의 사업 파트너가 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지원해줄 인력풀이 풍부했기 때

문이다.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작업은 학교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특히 지역 내 종합고등학교와 연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 참여를 용이하게 했다.

## 제5장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방안

### 제1절 서울 청소년의 문화활동 프로세스에 따른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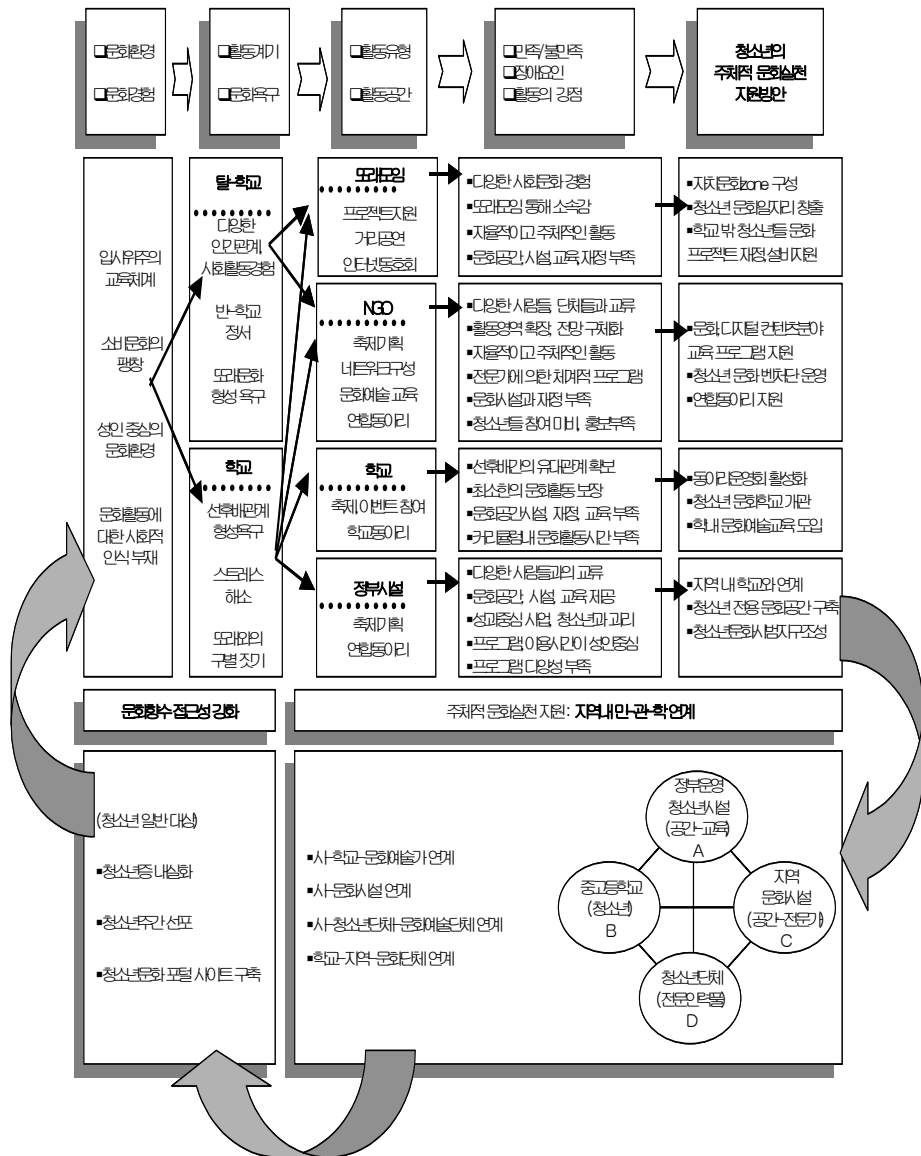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 청소년들의 문화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은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일반 문화시설 역시도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또한 매우 많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는 저조하고 만족도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 환경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청소년 문화사업과 청소년들의 문화욕구가 괴리되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가 파악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참여계기, 활동유형, 만족도 및 욕구, 장애요인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참여 프로세스 각 과정마다 효과적인 정책 개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선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프로세스를 요약해보면 <그림 5-1>과 같다.

이 프로세스 모형에서 보듯, 현재 청소년이 처한 문화환경은 입시위주의 교육체계, 소비문화의 팽창, 성인 중심의 문화환경, 문화 활동에 대한 사회인식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 문화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이 각기 처한 다양한 위치와 특징에 따라 상이한 경로를 통해 상이한 활동 공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을 기반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문화 활동의 장애물이나 문화 활동의 욕구를 자각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 혹은 단계들에 개입하여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정책의 역할이라 한다면, 정책적 지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가지 차원, 즉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 -> (현실화) -> ‘지역내 민관학 네트워크 지원’ -> (대중화) -> ‘청소년 문화

향수 접근성 강화 지원' -> (문화환경 변화) 의 순환적 지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림 5-1> 서울 청소년의 문화활동 프로세스에 따른 활성화 방안





먼저,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경험을 통한 상이한 문화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청소년 주체별로는 탈학교 청소년과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활동공간별로는 또래모임, 청소년 민간단체(NGO), 학교, 정부의 수련시설 등을 나누어 다양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경험을 파악, 그들의 문화활동 참여과정과 활동양상, 문화적 욕구 등을 알아보고 세분화된 정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지역 내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의 부족 및 한계, 한정된 물적·인적 자원 등을 고려할 때 지역 내 민-관-학 네트워크는 필수적이다. 각 시설 및 기관, 관련 주체들이 지닌 특징을 살리면서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구성은 청소년 문화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기획하여 현실화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청소년 문화환경을 개선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 향수 접근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 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시설과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활동의 계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처해 있는 문화환경 전반에 대한 고민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수립을 필요로 한다.

## 제2절 서울시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 방안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프로세스를 통해서,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해보면 크게 세가지 측면, 즉 ‘공간적 측면’, ‘교육적 측면’, ‘직업연계적 측면’에서 지원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 1. 공간적 지원 : 지역사회 내 청소년 문화 활동 공간 구축

### ○ 청소년 동아리 활동 공간 활성화

- 청소년 수련원 등 청소년 시설을 지역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장으로 제공

### ○ 청소년 자치문화 Zone과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 청소년들이 공연, 전시 등의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해방구 제공
- 청소년이 기획하고 주최하는 청소년 동아리 축제공간으로 활용
- 대안화폐를 사용한 물물교환 장터 운영 등으로 자치활동 강화 지원

### ○ 청소년 문화 시범지구 조성

- 지역내 민관학 네트워크 잠재력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범지구 조성

## 2. 교육적 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

### ○ 문화 콘텐츠 분야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문화콘텐츠 분야 교육 및 교사 지원

### ○ 학내 문화예술 교육 확대 도입 및 문화 활동 교육 실시

- 문화예술 관련 커리큘럼 확충
- 학교 밖 청소년 문화시설과 연계,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설

### ○ 청소년 문화학교 개관

- 일반문화시설 및 청소년 문화시설, 학교와 연계하여 문화학교 개관
- 학점 운영제로 운영. 학교의 예체능 과목 대체 이수 인정
- 서울시 문예진흥기금 수혜자 등을 중심으로 예술가와 학생의 만남 유도

### 3. 직업연계 지원: 청소년들의 문화산업활동 지원

- 청소년을 위한 문화 일자리 창출
  -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관련 일자리에 청소년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 혹은 청소년 고용할당제 도입
  - 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원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경우, 장학금 등 혜택 부여
- 청소년 문화벤처단 운영 활성화
  - 순수기초예술, 대중엔터테인먼트, 영상 및 사진예술 분야 등에서 전문적 지도를 받고, 지역사회 및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식 발표회 등 행사를 개최하는 청소년 문화예술동아리 단체 선정, 해당 단체에 전문 강사를 파견 및 행사경비 지원
- 학교밖 청소년들의 프로젝트형 창작 프로그램 지원

### 제3절 지역 내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 방안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성’이 고민되어야 한다. 더구나 현재 서울시가 지니는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문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재배치와 재분배가 요구된다.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한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에 우선점을 두어, 지역내 학교, 문화시설, 청소

년단체, 정부운영시설 등간의 네트워킹 방식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문화 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출해야 한다. 네트워크 구성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1. 네트워크(networker) 협의체 구성

### ○ 역할 및 기능

- 지역사회에 기반한 네트워크의 모범 사례 제시
- 민-관-학 네트워크 모델 개발
- 구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연구 작업 및 사전 조사 작업에 자문

### ○ 구성 및 운영

- 서울시내 존재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주요 주체로 구성
- 네트워크 협의체 모임의 운영지원은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

## 2.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팀 구성(구별로 진행)

### ○ 역할 및 기능

- 지역 내 문화시설 및 청소년 문화시설 실태조사
- 지역 내 전문 문화예술인 인적 자원 조사
- 지역 내 청소년 관련 문화프로그램 조사
- 지역 내 중·고등학교 문화 활동 현황 및 문화 교육 실태조사
- 지역 내 청소년들의 문화 욕구 실태 조사

○ 구성 및 운영

- 10명 내외로 구성, 실태조사팀의 팀장은 각 구별 청소년과 실무자가 담당
- 지역 내 청소년 단체 및 시설 관련자

### 3. 지역사회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

○ 역할 및 기능

- 청소년 문화사업 공동 기획·진행
- 청소년과 지역사회 연계, 공동의 지역문화 창출

○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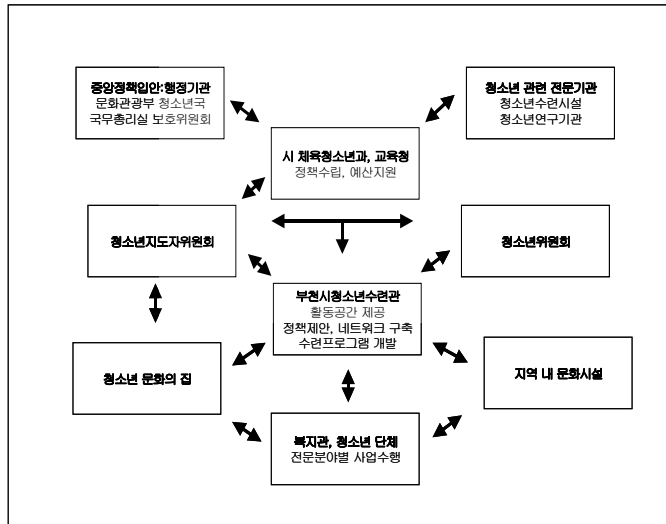
-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문화시설, 민간 사회·복지 단체, 지역 내 중·고등학교 등 주체로 구성
- 지역 내 청소년 단체 및 시설 중 네트워크 운영간사 선정
- 네트워크 운영에 재정적 지원

### 4. 네트워크의 특징에 따른 모델 개발 예시

#### 1) 청소년 수련관 중심 모델

- 지역의 청소년 수련관이 네트워크의 주체가 되어, 지역내 문화시설과 청소년 동아리, 중고교, 청소년 단체, 정부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 정기회의 진행, 공동사업기획, 청소년동아리 장비, 공간, 지도자 지원 및 교육, 청소년 지도자들 및 동아리 회원간의 커뮤니티 구성

<그림 5-2> 민관학 네트워크 모델(1): 청소년 수련관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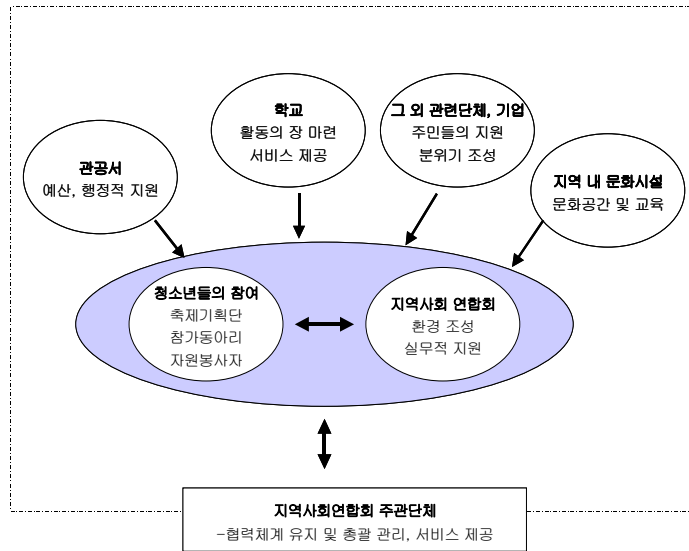
## 2) 청소년 민간단체 중심모델

- 청소년 민간단체가 네트워크의 주체가 되어, 정부운영 문화시설, 중학교, 정부, 기업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성이 주요 사업목적. 지역 청소년의 문화공동체 형성, 지역청소년축제 공동기획단 구성, 공동협력사업 추진, 동아리 지원 사업 등 연계 프로그램, 학교 문화활동에 인력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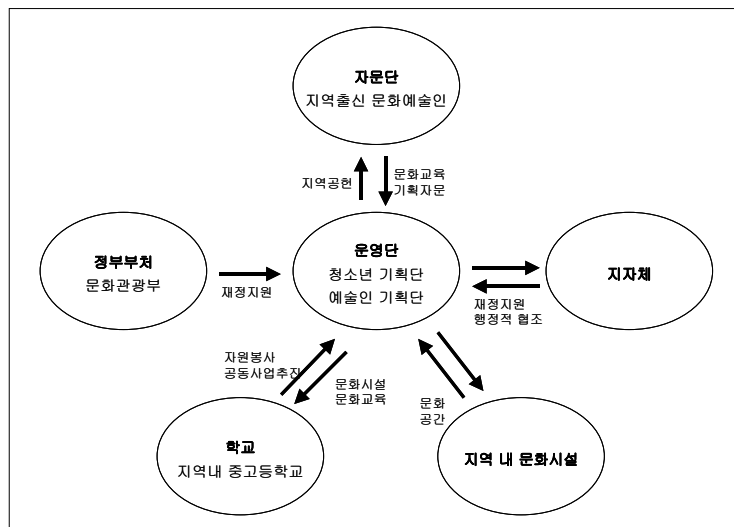
## 3) 문화예술인 중심 모델

-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지역내 학교와 문화시설, 지역인사, 정부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 지역문화활동에 초점을 두면서, 인적 자원 확보 및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그림 5-3> 민관학 네트워크 모델(2): 청소년 민간단체 중심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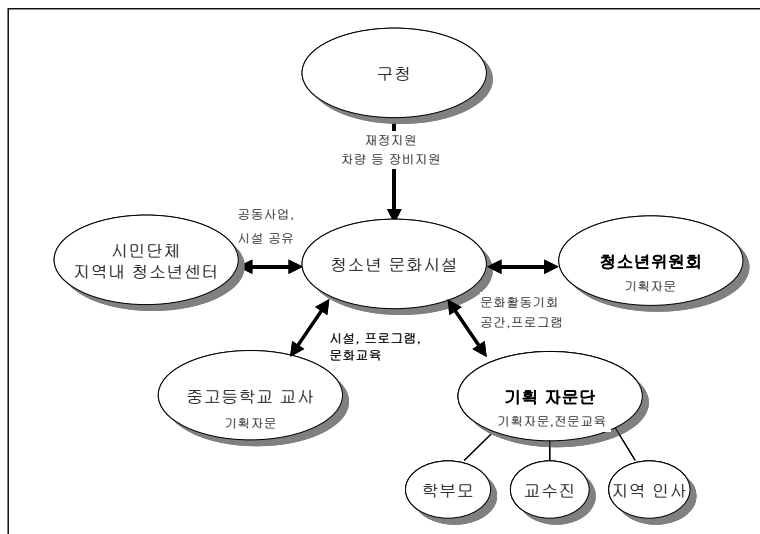
<그림 5-4> 민관학 네트워크 모델(3): 문화예술인 중심 모델



#### 4) 지역 리더 연계 모델

- 유스센터 등 청소년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내 학교, 지역인사, 학부모, 청소년시설, 정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 지역내 관련기관과 연계, 청소년 보호 및 상담활동, 공동사업 기획 및 자문 활동

<그림 5-5> 민관학 네트워크 모델(4): 지역 리더 연계 모델



#### 5. 네트워크형 문화활동 지원 강화

- 서울시 문예진흥기금 지원 등 청소년 지원 공모사업 수행시 네트워크 사업 지원 강화
-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제안서에 네트워크 계획 및 네트워크 효과를 명시하여 평가항목화



- 네트워크형 사업에 대한 연계지원 강화

## 제4절 청소년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

청소년의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을 증대시키는 프로그램과, 청소년문화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1. 서울시 청소년 문화 포털 사이트 구축

- 서울의 청소년 문화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구축
  - 청소년 문화시설, 청소년 단체,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청소년 전문가 정보 실시간 제공
  -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청소년 지원사업 정보 제공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및 전문가 재교육 사이버 프로그램 운영
  - 문화산업 분야와 연계 직업 창출의 기회 제공
  - 청소년 문화달력 제공
  - 청소년들의 삶, 이야기, 활동 등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제공 등
- 청소년 문화포럼, 청소년지원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허브웹사이트 등 여타 청소년 관련 사이트와 연계
- 청소년 전문단체 혹은 청소년 네트워크 단체에서 사이트 운영간사 역할

## 2. 청소년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 증대

### 1) 청소년증 내실화

- 서울시 거주 만 13-18세 청소년은 현재 77만여명, 이 중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3만5천명으로 46% 차지. 현재 청소년증은 학생이 아니라는 증명처럼 보이는 낙인효과를 보이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를 개선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학생/비학생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혜택을 확대시킴. 예를 들어 공연예매 할인(동반자 할인 포함), 여행상품 할인, 공연당일 여석에 대해 80%이상 할인,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 할인, 일정기준의 상가에 가칭 ‘청소년 사랑’ 인증제도 실시 및 포인트 적립, 대중교통수단 할인, 극장 관람료, 음반구입비 등 할인으로 점차 확대

### ○ 해외사례 벤치마킹

#### ■ 프랑스의 청소년증(La Carte Je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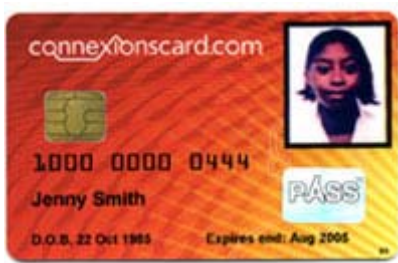
- 유럽 전역에서 사용 가능
- 26세 미만에게 비밀번호와 함께 발급되며 가격은 46유로
- 발급시 이용가능한 혜택이 열거된 소책자가 함께 제공됨
- 구매시 포인트 적립
- 운전면허학원, 여행, 여가활동, 문화행사, 대량소비상품 등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 철도: 50% 할인

#### ■ 파리의 청소년 교통카드

- 중고생, 대학생 대상으로 2존 안에서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패스로, 가격은 125프랑(1998년 기준)

- 주말과 휴일에는 수도권 전역(5존)에서 무료이용 가능. 이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 2억 5,700만 프랑은 국가가 29%, 운송조합이 33% 나머지는 지방정부에서 보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할인 혜택 부여

#### ■ 영국의 커넥션즈(connexions) 카드



- 커넥션즈 카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증'과 비슷하지만 기본정보가 담겨 있는 칩이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카드라는 점에서 차이
- 잉글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13-19 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발급하며 학습, 직업훈련 및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포인트 적립. 이 포인트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체험을 포함해 상품의 무상, 혹은 할인 구매 가능
- 커넥션즈 카드 스티커가 붙어있는 아울렛이나 상점에서 즉석 할인 혹은 특별 가격으로 상품 구매 가능

#### 2) 서울시 청소년 주간 선포

- 봄방학이나 졸업시즌 기간 등 특정 기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정례화
-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이용 청소년 및 청소년 동반 가족에게 50%이상의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청소년 주간 선포
- 사설기관의 경우,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기관과 서울시가 할인 폭의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행

### 3. 소외계층 및 지역 지원 프로그램

#### 1)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청소년 공연 무료 관람 확대

- 찾아가는 문화행사와 모셔가는 문화행사 병행
- 최종 리허설 관람 기회 부여
- 방학기간 중 낮시간대 영화관람 할인 등

#### 2) 취약지역 학교 문화예술 관련 특별활동 지원

- 합창단, 미술반, 악기반 등에 대해 전공 지도교사 파견 및 물품 지원
- 개인교습을 원하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료교습 실시
- 예술가 지역 상주 프로그램 실시

## 제5절 서울시 청소년 문화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의 청소년 문화정책 마스터플랜의 성격을 띠는 기본계획 수립
- 청소년 문화정책의 비전과 목표, 정책방향, 추진전략 등을 수립하고 단계적 세부계획 마련
  - 해외도시의 청소년 문화정책 목표 참조(표 5-1)

<표 5-1> 해외도시의 청소년 문화정책 목표

구분	정책목표	관련 프로그램
영국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디자인하고, 발전시키며, 평가한다!	<b>문화접근성 확대, 인관네트워크 프로그램</b> :컨넥션즈(connexions) 프로그램
프랑스	청소년을 문화적 소양과 소통능력을 갖춘 자유롭고 비판적인 주체로 만든다!	<b>문화주체 양성 및 지원 프로그램</b> :청소년 영화활동 참여지원프로그램, 시네클럽연맹, 영화관/영화마을에서 보내는 여름 프로그램
미국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문화를 만들어간다!	<b>학교-지역 연계 프로그램</b> :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 'Learn and Service America', 'Youth Opportunity', '4H After-school Activity Program', 'ASPIRA', 'Voyager', 학습지원 프로그램
일본	지역문화 체험을 통해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간다!	<b>지역사회 문화체험 프로그램</b> :코모도 플랜(3개년 전략) 프로그램. 아동방송국, 아동센터, 상업활동체험, 박물관과 친해지기 사업, 과학실험 공작교실, 대학개방플랜 등 다양한 지역연계 프로그램

-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CIS 즉, 콘텐츠 부문, 인프라 부문, 시스템 부문 관련 추진방안 명시
  - 콘텐츠 부문: 체험활동 다양화, 역량개발 기회 확대, 보호 및 복지 현실화
  - 인프라 부문: 인적인프라, 기관인프라, 지역인프라 구축
  - 추진체계 확보, 네트워킹 강화, 참여기반 확대
- 기본계획에 청소년 문화향수 접근성 강화 영역,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실천 지원영역, 지역내 민관학 네트워크 지원영역 포함 필수
-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청소년 문화정책과 연계된 서울시 정책 수립

## 참고문헌

---

- 권두승·조아미, 1998, 『청소년 세계의 이해』, 문음사.
- 김소연, “2030의 라이프스타일과 매체이용형태 분석,” 『광고정보』 2월호.
- 김영지 외, 2000, 『저소득층 청소년문화 실태와 문화적 권리 신장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문화관광부, 2003, 『청소년 백서』.
- 성동규 외, 2001,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실태와 독서습관 개선 방안 연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신경희, 2000, 『서울시 중장기 청소년 정책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종규, 박순애,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정유성, 2000, “청소년 문화 담론 형성을 위한 시론”, 『한국청소년연구』 9권 제2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성남 외, 2002, 『청소년의 하위문화와 정체성』, 집문당.
- 조 은 외, 2000, 『청소년언더문화 현장 연구: 문화 소비자(prosumer)로서 청소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조한혜정, 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또 하나의 문화.
- 조한혜정, 2000,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또 하나의 문화.
- 통계청, 2004, 『청소년 통계』.
- 청소년 문화공동체 ‘폼’, 2002, 『Netwokr와 청소년 문화 활동』, 폼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청소년문화포럼 준비위원회, 2004, 『사회변동과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비전 찾기』, 청소년문화포럼 제1차 준비포럼 자료집.

- Besley, A. C., 2003, "Hybridized and Globalized: Youth Cultures in the Postmodern Era," in *The Review of Education, Pedagogy and Cultural Studies*, 25.
- Council of Europe, 1998, "European Youth Trends".
- Ariès, Ph., 2003, 『아동의 탄생』, 새물결.
- Judy Giles & Tim Middleton, 2003, 『문화학습-실천적 입문』, 동문선.
- DCMS, 2003, "Learning to Listen: Core Principles for the involvement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ion Plan 2003/2004.
- Driskell, D., 2002, *Creating Better Cities with Children and Youth: A Manual for Participation*, Paris: Unesco Publishing.
- Fleras, A., 2002, "The Intersection of Age and Race/Ethnicity/Official Language/Religion," draft prepared for the seminar on the "Intersection of Diversity".
- The National Youth Agency and London Youth Arts Network, 2002, *Building Youth Arts Policy 'Practice into Policy?'*, report presented at Stratford Circus, 18 October.
- Morino, M., 1999, *Community@work: Rethinking How We Help Young People*, paper presented at Potomac Regional Education Partnership Spring Conference, April 26, Morino Institute.